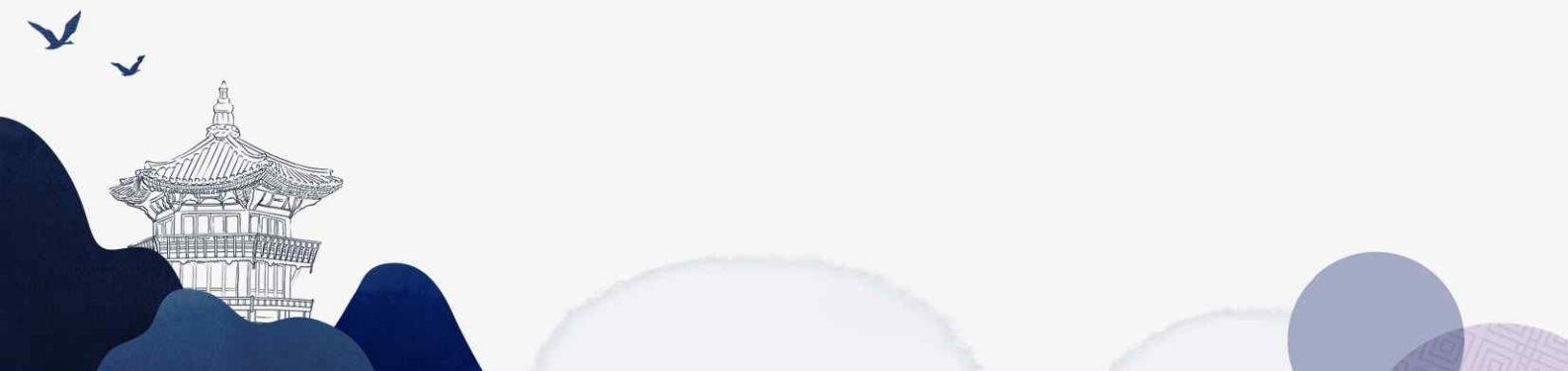




목차

1	학습안내	1
2	강의	3
3	Lecture	25
4	讲义	54
5	퀴즈	72
6	토론	75
7	자료	77





학습안내



01

과목소개

<새로 읽는 한국의 고전>은 한국의 고전 가운데 6종의 문헌을 선정하여 저술 배경과 의의를 살피고 핵심적인 부분을 함께 읽어가면서 이해를 도모하는 고급 교양 강좌이다. 6종의 고전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문헌을 위주로 선정하였으며, 해당 문헌을 깊이 연구하고 번역서를 간행한 경력이 있는 분들이 강사로 참여하도록 기획하였다. 각각의 문헌마다 2주의 강의를 진행하는데, 각기 고전의 저자, 저술 배경, 의의 등을 소개하는 '이해'와 고전의 본문을 강독하면서 해설을 곁들이는 '읽기'로 구성된다. 6종의 문헌을 다룬 강의를 모두 학습하는 것을 권고하지만, 수강생의 관심과 필요에 따라 일부 문헌만 학습하더라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수강생들은 본 과목을 수강함으로써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한 단계 높이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02

학습목표

- (1) 한국 고전의 이해를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 (2) 한국 고전의 감상을 통해 고전의 본질과 의미를 탐색하고 한국 및 동아시아의 기록문화를 직접 대면하는 기회를 얻는다.
- (3) 한국의 고전을 매개로 삼아 한국 및 동아시아의 지적 전통 및 출판문화에 대해 이해한다.

03

기대효과

이 강좌는 한국의 고전을 직접 읽어가면서 내용과 의의를 이해함으로써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강좌에서 다루는 6종의 고전 가운데에는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문헌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문헌들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차별화된 고급 교양을 얻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문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번역서를 간행한 경력이 있는 연구자가 강사로 참여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였기 때문에, 이 강좌는 수강생들에게 전통적인 한국문화의 다양한 면모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강좌에서는 《양화소록》, 《경민편》, 《연병지남》, 《한경지략》, 《만국사물기원역사》, 《한국통사》의 6종의 고전을 각기 2주씩 강의한다. 이들 고전은 화훼 재배와 감상, 백성의 교화, 병법, 풍속과 문화, 백과사전적 지식, 역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수강생이 그 저술 배경과 저자 등에 대한 지식을 찾아가면서 내용을 감상하게 되면 한국의 전통문화와 사회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정보를 얻게 될 것이며,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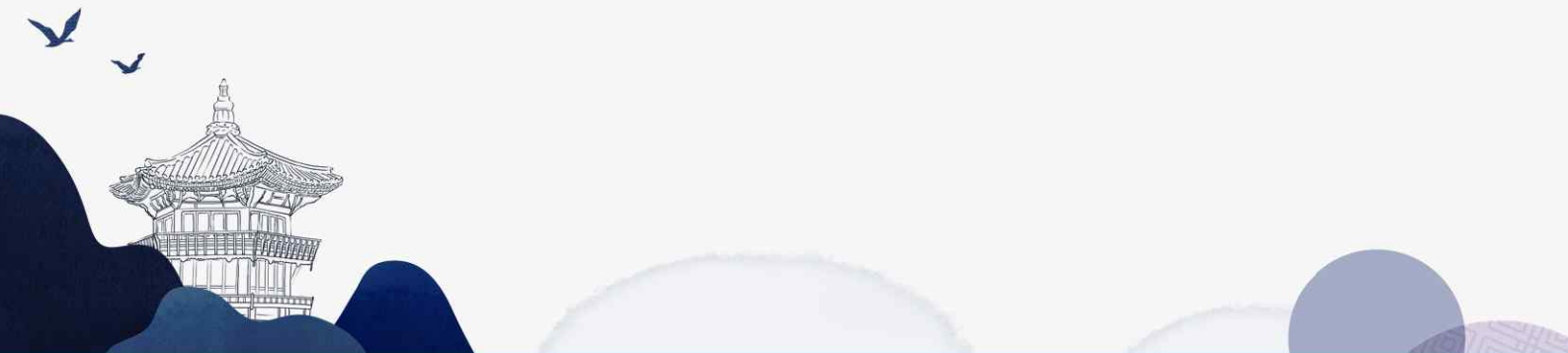
주차별 구성

1주차	《양화소록》의 이해
2주차	《양화소록》 읽기
3주차	《경민편》의 이해
4주차	《경민편》 읽기
5주차	《연병지남》의 이해
6주차	《연병지남》 읽기
7주차	《한경지략》의 이해
8주차	《한경지략》 읽기
9주차	《만국사물기원역사》의 이해
10주차	《만국사물기원역사》 읽기
11주차	《韓國痛史》의 이해
12주차	《韓國痛史》 읽기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강의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3

주차

《경민편》의 이해

3-1

김정국과 《경민편》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 읽는 한국의 고전에서 『경민편』의 강의를 맡은 정호훈입니다. 이번 강의는 세 번째 강의로 '경민편의 이해'라는 주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김정국이 황해도 감사로 재직하던 1519년에 제작하여 지방민들의 교육에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지방관이 지방민들을 대상으로 만든 책이 경민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보기 드문 내용을 담고 있던 이 책은 김정국 개인의 저술이지만, 이 무렵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기묘사림의 정치적 이념을 반영하고도 있었기 때문에, 황해도를 벗어나 조선 전역에서 널리 보급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1519년에 일어난 기묘사화에 김정국이 연루되어 파직되면서 한동안 잊혀졌습니다. 그 후, 15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김정국이 전라도 감사로 복귀하면서 다시 활용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가 세상을 떠난 뒤로 다시 묻혔습니다.

흥미롭게도 16세기 말 이후, 조선에서는 중앙 정부와 지방의 관리들이 이 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여러 차례 증보하며 활용했습니다. 편찬자들을 중심으로 놓고 살펴보면, 16세기 말의 허엽(許曄) 간본, 17세기 중엽의 이후원(李厚源) 간본, 18세기 송인명(宋寅明)과 이정숙의 간본을 거론할 수 있습니다.

경민편이 여러 차례 증보된 까닭은 이들 권력자들이 이 책이 가진 현실적 효용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초기 간본에 비해 후대에 나온 자료는 모습이 많이 바뀌고 내용도 늘어났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조선 역사 속 경민편의 활용 과정과 특성을 살피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조선이 오랫동안 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었던지를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나아가 현대 한국인을 지배하는 의식의 전통적 근거가 무엇인지도 확인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김정국은 16세기 전반에 활동한 학자이자 관료입니다. 이 장에서는 그의 생애를 정리하고 경민편을 편찬하게 되는 동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의 자료는 『성리대전서절요』입니다. 방대한 규모의 성리대전에서 중요한 내용만 간추려서 만든 책입니다. 1538년 나주에서 간행했으며 학자로서 김정국의 면모를 잘 보여줍니다. 그의 무덤은 현재 파주에 있습니다.

김정국은 1485년, 성종 16년에 태어나 1541년, 중종 3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본관은 의성(義城)입니다. 의성은 옛날에는 문소(聞韶)라고도 했습니다. 김정국 스스로는 '문소'를 즐겨 썼습니다. 자는 국필(國弼)이고, 사재(思齋)·은휴(恩休)라는 호를 사용했습니다. 아버지는 예빈시 참봉(禮賓寺參奉)을 지낸 김연(金璉)이며, 어머니는 양천허씨(陽川許氏)로 군수 허지(許芝)의 딸입니다. 부모님은 김정국이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중종 대의 학자이자 관료인 김안국(金安國)이 형입니다. 김굉필(金宏弼)에게서 배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정국은 1509년, 중종 4년에 별시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고, 1514년에 사가독서(賜暇讀書)하였으며, 1518년 황해도 감사가 됩니다. 황해도 감사는 종2품의 고위직이었는데, 이를 맡을 때까지 김정국은 외관직(外官職)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이조정랑·사간·승지 등 요직을 두루 역임하며 조정에서 관료로서 생활했습니다. 조정에서 관료로 생활하는 관료를 경관(京官)이라고 합니다.

김정국은 통상 기묘사림(己卯士林)으로 부릅니다. 그의 정치 활동, 그의 정치적 사유는 기묘사림과 공통되는 요소가 많았습니다. 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종대 기묘사림과 관련하여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기묘사림은 조광조, 김식, 박훈 등 1519년 기묘년의 정변, 학계에서는 이 사건을 기묘사화로 부릅니다만, 그 정변이 일어났을 때 목숨을 잃거나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았던 일군의 유자(儒者)·관료(官僚)를 지칭합니다. 이들은 대체로 정변이 일어나기 전 5년에서 6년간, 새로운 법과 정책을 활발하게 제시하며 조선을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기묘사림의 정치 활동은 여러 가지 면모를 지니고 있습니다만, 이들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사실은 주자학의 기본 이념, 주자학의 기본 예제를 조선 사회에 널리 보급하려던 움직임입니다. 이들은 『소학』, 『주자증손여씨향약』, 『주자가례』 등 주자학에서 중시하던 문헌을 보급하고, 또 그 내용을 사회적으로 실천하려 하였습니다. 당시 정치권에는 주자학에 찬동하지 않는 세력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싸고 정치적인 갈등이 심하게 일었고, 결국은 1519년 정변이 일어났습니다.



김정국 또한 이들과 생각을 같이하고 보조를 맞추었습니다. 그의 형 김안국(金安國)도 기묘사림의 일원으로 조선을 바꾸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1519년 11월,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황해도 감사를 연임(連任)하고 있던 김정국은 관직을 삭탈 당하고 고양(高陽)으로 은거합니다. 그는 이곳에서 팔여거사(八餘居士)라 자칭하면서 학문을 닦고 저술과 후진 교육에 전심하였습니다. 김정국은 생애 말년에 전라도 감사로 복귀하였으며 그 뒤 경상도 감사를 지내던 중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묘사림의 활동을 잘 보여주는 자료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1518년에 간행된 『번역소학』입니다. 『소학』은 이미 고려 말부터 도입되었지만 그렇게 많이 읽히지는 않았습니다. 기묘사림은 ‘소학보급운동’을 활발하게 펼치며 주자학을 조선에 널리 확산하려고 합니다. 그 일환으로 만들어진 책이 『번역소학』입니다.

이 책은 처음에는 금속활자인 을해자(乙亥字)로 간행됩니다. 『소학』의 표준 학습서, 번역서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에서 주자학에 기초한 지식혁명, 문화변혁이 일어남에 일조한 문헌의 하나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소학』의 한 대목입니다. 원문을 먼저 제시하고 다음에 한글 번역문을 붙였습니다. 원문은 한자의 음을 한글로 달고, 구절마다 한글로 구절을 달았습니다.

김정국은 “인간의 도리와 연관이 매우 깊으면서도 백성들이 일상에서 저지르기 쉬운 범죄 사항 13가지를 정리, 어리석은 백성들이 늘 마음으로 익혀 악(惡)을 멀리하고 선(善)을 좇음에 만분의 일이라도 도움”이 되 고자 하는 의식으로, 이 책을 만들고 예하 군현의 수령들이 활용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경민편』은 감사의 처지에서, 지방민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모색 하며 그 나름의 해답을 담아 펴낸 책이었습니다.

‘백성을 경계한다’는 이름 그대로 『경민편』은 국가 기관 곧 감사와 지방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은 국가의 공권이 주도하여 편찬한 백성의 계도서(啓導書)이기도 하고, 지방관이 지방 정치의 일선에서 활용하는 정치 교재이기도 했습니다.

김정국이 이 책을 간행한 사정은 그가 황해도 감사 시절을 반추하며 남긴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 부분만을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황해 감사를 지내던 시절, 연안에 이동(李同)이라는 자가 살았었다. 밥을 먹던 중 아버지와 다투다가 그는 사발을 들어 아버지를 쳤다.



“부자 관계는 천지·군신의 분수와 같다. 아버지가 없으면 네 몸이 어찌 생길 수 있었겠는가. 그러므로 부모를 잘 모시면 효자가 되고 구타하고 욕설하면 악역자(惡逆者)가 된다. 너는 사발을 가지고 아버지를 때렸다. 이것은 땅이로되 하늘을 범하고 신하로되 임금을 범한 것과 같으니, 법으로는 죽을 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판결을 마무리하여 너를 사형에 처할 것이다.” (……) 가르치지 않고 형벌을 가하는 것은 망민(罔民)이다. 이동의 행동은 바로 가르침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연안에 살던 이동이란 사람이 아버지를 구타했던 까닭에 재판을 받았는데, 이는 당시 법으로는 사형에 해당되었습니다. 김정국은 그가 사형을 받아야 할 죄를 범했지만, 아들이 아버지에게 구타를 하거나 불효를 저지르면 엄한 죄를 받는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죄를 저지르면 안되는 이유, 범법행위를 하면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를 가르치지 않고 처벌하는 것은 백성을 기망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정국은 이런 점을 이동에게 알려 주었고, 이동은 김정국의 말을 듣고 부자 관계의 중요성과 부모에 대한 범죄가 죽을 죄에 해당함을 깨우치며 죄를 빌었다고 합니다. 추측건대, 김정국의 『경민편』집필은 감사 시절의 이러한 경험이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경민편』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책이었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형률에 따라 처벌하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며,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그러한 행동을 하면 안되는 이유를 먼저 알게 해야 한다는 의식이 이 책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무지(無知)에 대한 문제의식 그리고 무지에 대한 계몽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관념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항해도의 지방 장관으로 재임하며 지방민을 가르쳐 범죄의 잘못을 일깨우고, 이를 통해 그들이 악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고 여겼던 김정국의 의지는 형벌의 강제성과 폭력성을 배제하려는 유가(儒家)의 사유, 보다 좁혀서는 주자학에 충실한 결과였습니다. 주자학에서는 배움을 통한 개인의 지적 도덕적 변화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김정국은 14~15세기에 지속적으로 확장된 유교 문화, 주자학의 이념을 자신의 입지에서 적절히 소화하고 지방 장관으로 지내는 동안 이를 응축하여 『경민편』으로 엮어내었던 것입니다.

화면에서 보는 그림은 19세기 초 경상도 곤양의 읍성입니다. 옥사(獄舍)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림은 15-16세기에 비하면 훨씬 후대의 사정을 담고 있지만, 경민편이 만들어지던 시점의 상황을 유추하는데 도움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권력은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엄격하게 구속하고 처벌했으며, 심하면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김정국은 지방민들이 죄를 저질러 처벌받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경민편』의 편찬을 통해 제시하려고 했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경민편』의 구성과 개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3-2 《경민편》의 구성과 개성

지난 강의에서는 김정국과 『경민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경민편』의 구성과 개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민편』은 현재 초간본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김정국이 황해도 감사로 재직하던 당시에 간행된 책자임을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는 『경민편』의 실물은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 책에 대한 이해는 출발부터 난관에 봉착합니다. 책의 구성, 다루고 있는 내용은 후대에 간행된 간본을 통해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이른 시기의 간본은 건국대학교 상허기념도서관 소장 자료, 이하 상허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간본은 김정국의 『경민편』초간본은 아니지만, 초간본과 시간상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초기 간본에 해당합니다. 이를 통해 살펴보면, 초간본의 모습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경민편』의 본문은 모두 13개 편 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1장 부모(父母)에서 시작하여 부처(夫妻), 형제자매(兄弟姊妹), 족친(族親), 인리(鄰里), 투구(鬪毆), 근업(勤業), 저적(儲積), 사위(詐僞), 범간(犯姦), 도적(盜賊), 살인(殺人), 노주(奴主) 순으로 배치되었습니다.

13개 주제는 『대명률직해』, 『경국대전』의 형률을 활용하여 선정했습니다. 이들 주제는 지방민들이 일상에서 저지를 수 있는 주요한 범죄와 일탈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13장의 순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몇 유형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주제를 중심으로 주제를 구성하되, 부모와 가족, 혈족을 다루었습니다. 인리는 가족 혈족은 아니지만 가족 밖에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제6장 투구 이래 12장 살인까지는 범죄 혹은 일탈을 중심으로 주제를 정했습니다. 일상적 생활에서 저지할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다만 부지런히 생업에 종사할 것을 강조하는 근업(勤業), 낭비하지 말고 저축하면서 살 것을 권하는 저적(儲積)은 범죄와는 무관합니다만, 이들 장에서는 게으름과 낭비를 범죄적 행위로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의 노주 장은 특이합니다. 이 장에서는 노비와 주인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체와 연관된다면 전반부에 배치해야 할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노비가 범죄 행위자도 아닙니다. 다만 『경국대전』에서는 노비와 연관된 사실은 형전(刑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존재 자체를 범죄와 묶어서 이해하는 독특한 관념을 확인할 수 있는데, 『경민편』에서의 편성 또한 그러한 요소에 영향을 받았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각 편 장은 주제별로 죄를 지어서는 안되는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이어 범죄에 따른 형벌 규정을 실어 두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성격의 내용이 장마다 실려 있는 셈인데, 형벌 규정을 이야기할 때에는 ‘법(法)’이라고 밝혀 두었습니다. 13개 주제에서 이 방식의 구성은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죄를 지어서는 안되는 이유는 대체로 유교의 도덕과 상식적인 사리를 들어 설명하고, 형벌 규정은 『대명률』, 『경국대전』에 있는 형률을 이용했습니다. 『대명률』은 조선에서 형률의 기본 도서로 활용했기 때문에 경민편에서 거론하는 형률은 대부분 『대명률』에서 왔습니다. 처벌은 주로 『대명률』의 5형 위주로 행해졌습니다.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입니다. 1395년 태조 4년, 정부에서는 이두(吏讀)로 내용을 직해(直解)하여 형벌 실무자들이 이 책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행하고, 『경국대전』이 완성되면서 ‘형률은 『대명률』을 이용한다’는 원칙을 명기하면서 『대명률』 활용 근거를 법으로 분명히 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선 정부는 『대명률』에 포괄되지 않는 조선 고유의 형률도 제정하여 활용했지만 『대명률』이 중심이었습니다.

화면의 『대명률직해』는 1686년에 간행된 것인데, 현재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도서입니다. 첫 장에 ‘내각(內閣)’, ‘규장지보(奎章之寶)’란 장서인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 후기 규장각에서 소장하고 있었던 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명률직해』는 먼저 한문으로 원문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작은 글자로 이두를 활용하여 풀이했습니다. 직해진 내용을 확대해보았습니다. ‘능지처사(陵遲處死)’의 형벌을 조선에서는 거열형(車裂刑)으로 대신 시행했기 때문에, ‘능지처사(陵遲處死)’를 ‘거열처사(車裂處死)’로 풀이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대명률(大明律)』에 규정되어 있는 다섯 종류의 형벌입니다. 태형부터 사형에 이르기까지 다섯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 형벌마다 또 경중에 따라 형량이 달라졌습니다. 사형의 경우에는 교형, 참형 두 종류가 있는데, 참형이 더 무거운 처벌이었습니다. 능지처사는 오형에는 들어 있지 않지만, 실제 규정에는 이를 적용했습니다.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화면은 참형의 집행 장면입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을 제1 부모장을 예로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용문의 띄어쓰기는 내용에 맞추어 임의로 시도했고, 동그라미 표기는 결락(缺落)하여 보이지 않는 글자를 표시합니다. 붉은색의 글자는 구결이며, 본문은 한문으로만 서술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한글로 번역하지 않아, 한문 독해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읽기가 매우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번역문을 제시합니다.

문장 중간에 차자(借字) 구결(口訣)을 두어 독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오(五)’, ‘비(飛)’, ‘위시고(爲時古)’, ‘위시니(爲時尼)’, ‘시니라(是尼羅)’, ‘은(隱)’, ‘위면(爲面)’ 등은 ‘오’, ‘나’, ‘하시고’, ‘하시니’, ‘이니라’, ‘은’, ‘하면’으로 읽는 구결의 차자 표기입니다. 한자의 음과 소리를 활용하여 우리말 구결을 표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아버지는 하늘 같고 어머니는 땅과 같다. 수고로이 나를 낳아 부지런히 젖을 먹여 힘들게 길러내니, 부모의 은덕은 하늘 같이 끝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모와 조부모에게 불효를 하면 “조부모와 부모를 의도하여 죽이면(謀殺) 능지처사(陵遲處死)하며, 조부모와 부모를 때리면 목을 베는 형벌(斬刑)을 내리고, 조부모와 부모를 꾸짖으면 목매달아 죽이는 형벌(絞刑)을 내린다. 가르쳐 시키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힘써 봉양하지 않으면 장(杖) 100대를 친다.”고 했습니다. 죄의 성격에 따라 능지처사형, 참형, 교형, 장형 등을 내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민편』 제1장에서 부모·조부모에 대해 저지르는 범죄는 모두 다섯 가지로 거론했습니다. 살해(謀殺), 구타, 욕설(罵詈), 불손함, 고소 등입니다. 각 범죄마다 그에 상응하는 처벌 규정을 제시했는데, 능지처사에서 장(杖) 100까지 여러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명률직해』에서는 불효(不孝)를 십악(十惡)의 하나로 규정하여 엄하게 처벌했으므로 형벌이 비교적 가혹했습니다. 『경민편』 제1장에서 다루는 내용은 『대명률직해』 형률편의 다섯 조항에 걸쳐 있으며, 『경민편』에서는 이 가운데 핵심이 되는 내용을 간추려 적었습니다. 고소의 경우, 부모로만 한정하고 또 처벌 내용도 복잡한 내용을 생략하고 ‘지중(至重)’이라고만 적었습니다.

전근대 형벌은 폭력과 압박, 강제력에 바탕하여 개인의 행동을 통제하고 이끄는 점을 특징으로 했거니와, 『대명률』에 근거한 조선의 형벌 운용 역시 그러했습니다. 강력한 처벌은 범죄를 가라앉히고 질서를 유지함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처벌 만으로는 범죄자의 변화를 기대하기도, 또 범죄의 발생을 낮추기도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경민편』은 범죄와 사회적 일탈에 대해 법으로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범죄 행위가 지닌 근본 문제를 지방민들이 먼저 깨닫고 이를 피하도록 이끌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경민편의 서문은 이에 관한 분명한 언명입니다.

“형벌과 법을 만든 것은 모두 옛 임금인 백성을 사랑하는 어진 마음에서 나온 것이니 그들을 먼저 도덕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법으로 구금 여부를 논한다면, 이 어찌 ‘백성에게 그물질하는 것’에 가깝지 않겠는가?

책을 만들면서, 반드시 근본을 미루어 도리[理]를 거론한 것은 백성들이 마음으로 느껴 흥기하기를 바래서 였고, 법(法)을 인용하여 참증(參証)한 것은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악을 피할 줄 알기를 바래서였다. 말은 간단하게, 문장은 평범하게 한 것은 백성들이 배우지 아니하고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였다.”

범죄를 막고 사회 질서를 유지함에 형벌보다는 구성원들의 지적 자각과 도덕성의 흥기를 기초로 해야 한다는 김정국의 생각은, 조선 시기 지방 정치 현장에서는 최초의 천명이었습니다. 『경민편』이 가지는 실질적인 의미는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경민편의 방법이 독특한 점은, 15세기 조선에서 시행했던 교화와 형벌의 방책과 비교하면 잘 드러납니다. 조선은 건국 직후,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백성들이 일탈하지 못하게 하는 수단으로 교화와 형벌을 주목하고 이와 연관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교화와 관련해서는 삼강(三綱)의 도덕성을 강조했습니다. 군주와 신하,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셋의 인간관계를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각 관계에 걸맞는 충(忠), 효(孝), 열(烈)의 도덕성을 기르고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를 편찬하여 보급하고 삼강 행실의 모범자들을 표창하였습니다.

앞에서도 거론했지만 형벌의 경우, 『대명률』을 기본 형전으로 삼아 범죄를 다스리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불효를 비롯하여 도적, 싸움, 사기, 욕설과 같은 광범위한 범죄 행위를 5형의 규정에 따라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백성의 범죄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하는 정책은 펼치지 못했고, 그런 생각을 담은 책자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경민편』에서와 같이 범죄 행위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교화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이를 백성들에게 알려 계몽하는 노력이 없었던 셈입니다.



그러므로 김정국의 『경민편』은 대단히 새로운 생각을 담은 책이었습니다. 김정국은 『경민편』을 통하여 사회와 정치 운영의 기초로 형벌보다 구성원들의 도덕적 자각이 우선함을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관념, 기존의 정치 문화와 결별하며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책은 문명사적 전환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고 봐도 좋습니다.

『대명률직해』는 앞에서 보았으므로, 『삼강행실도』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강행실도』초간본의 모습입니다. 1434년 세종의 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역사적으로 충·효·열의 모범 사례를 글로 정리한 뒤, 이를 그림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의 구성은 간단하데, 한 사실마다 한 면의 그림과 한 면의 사실, 시로 짝을 맞추었습니다. 그림으로 역사적 사례를 보여주므로 이해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삼강행실도는 한문으로만 원문을 작성하여, 한문을 잘 읽는 사람이 아니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성종 때에는 훈민정음을 이용하여 원문을 번역하여 실었습니다. ‘용방간사(龍逢諫死)’라는 제목의 사례입니다. 앞의 한문본에 실려 있는 같은 제목의 사례와 비교해 보면 두 책의 차이를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독자의 처지에서는 한문만 실려 있는 책에 비해 읽고 이해하기가 조금 쉬웠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삼강행실도』의 효과를 얻기 위해,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글 모르는 백성들을 모아서 책을 읽고 풀이해 주도록 하는 정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은 임진왜란 때 싸우다 전사한 정담이란 인물의 충절을 국가가 표창하기 위해서 만든 정려입니다. 경상북도 영천에 있습니다. 국가는 충신·효자·열녀를 선정하고 표창함으로써 지방에서 이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했고, 표창을 받는 사람들의 가족 후손들은 이 사실을 영예롭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16세기 말 허엽 간본의 편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3-3 16세기 말 허엽 간본의 편찬

지난 강의에서는 『경민편』의 구성과 개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16세기 말 허엽 간본의 편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국의 『경민편』은 1579년 선조 12년, 경상도 관찰사를 지냈던 허엽(許曄, 1517~1580)이 재차 간행하여 보급하면서 다시 생명력을 얻었습니다. 허엽의 중간본(重刊本)은 앞서 간행된 상허본에 비교하면 여러 면에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허엽의 『경민편』간행은 이 책이 조선에서 널리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8도 가운데 도의 형세, 도의 규모로는 경상도가 수위(首位)에 있었기에, 허엽의 『경민편』보급이 비록 경상도 한 지역에 국한되었다 할지라도, 그 미치는 범위는 앞선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었습니다.

경상도 지역에서 『경민편』이 널리 보급된 점은 이때 인쇄한 수량에서도 확인됩니다. 뒷날 허엽의 신도비문(神道碑文)을 작성했던 노수신은 허엽이 수천 본을 간행했다고 증언했습니다. 1585년 선조 18년, 허봉(許篈)이 속찬(續撰)한 『고사촬요』에서는 경상도 지역 『경민편』의 책판 보유지로 사천, 진주, 상주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 책판은 허엽의 중간본 책판과 관계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허엽 중간본은 매우 희귀합니다. 현재 일본의 츠크바대학(筑波大學) 소장본이 알려져 있습니다. 화면은 표지와 군상 장의 첫 면입니다, '안양원장(安養院藏)'이란 장서인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책은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흘러 들어가 바쿠후[幕府] 도서관에서 보관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허엽의 중간본은 초기 간본인 상허본과 비교할 때 형태상 여러 면에서 변화를 보였습니다. 책 머리에는 허엽의 중간(重刊) 서문, 김정국의 서문을 실었습니다. 이들 글이 실림으로써 김정국이 이 책을 짓게 된 이유, 애초 책을 만든 의도와 방향이 확실하게 제시되고, 허엽이 경상도 감사로써 이를 중간하게 되는 사정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책을 간행한 시점 또한 '1519년 겨울[正德己卯冬十月]'로 명시했습니다.

김정국이 틀을 잡아 두었던 '교화(教化)와 형벌(刑罰)'의 명제를 김정국의 서문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분명하게 부각한 점은 이 중간본이 가진 최고의 미덕이었습니다. 허엽이 중간본을 간행하며 김정국의 초간본을 참조하였는지 그 사정은 명확하게 보여주지는 않지만, 『경민편』초기의 모습이 어떠했을지를 유추하는데 이 자료들은 도움을 줍니다.



보다 결정적으로는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허엽은 '군상(君上)'이란 항목을 별도로 작성하여 이를 본문의 제일 첫머리에 배치했습니다. '군상'은 군주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김정국의 초기 간본에 없는 내용이 새로 들어간 셈인데, 허엽의 중간본은 기존의 13항목에 1항목이 더해져 모두 14항목이 되었습니다. 초기 간본인 상허본과 허엽 간본을 비교하면 화면의 표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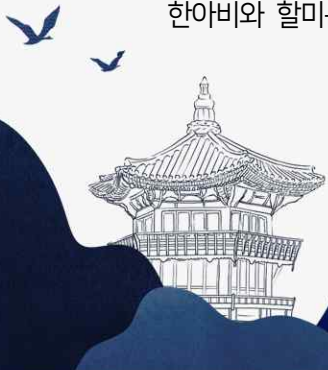
허엽 간본은 앞에 나왔던 간본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입니다. 먼저, 첨가된 군상장을 통해, 백성들이 군주와 국가에 충성을 다하고, 국가가 부여하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허엽은 아마도 김정국 간본에서 군주·국가와 백성의 관계가 빠진 점은 문제가 많으니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허엽이 작성한 군상 장의 전문입니다. 두 문단으로 나누어서 의미를 살필 수 있습니다. 첫 문단에서는 '군주는 백성의 주인이고 국가는 백성이 의지하는 곳'이라고 한 뒤, 백성들이 삶을 영위하는 것은 국가가 양육하는 은혜를 베풀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백성과 군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여기는 인식이 흥미롭습니다. 둘째 문단에서는 백성은 백성에게 주어진 직분 곧 공부(貢賦)와 요역(徭役)을 충실히 납부하고, 국가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피하지 않고 도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허엽의 간본은 표기 또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원문에 대해 상허본과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상허본을 따랐습니다. 구결의 차자 형식은 상허본을 그대로 계승했습니다. 그 점에서 새로운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문으로 작성된 원문을 한글로 번역하여 덧붙인 점은 전에 없던 혁신이었습니다. 한문과 한글을 동시에 사용하여 표기하였기 때문에 독자들은 이 책에 접근하기가 매우 쉬웠으리라 생각합니다. 한문으로만 작성된 간본에 비해 언어 장벽이 많이 낮추어졌습니다. 책의 내용을 이해함에 한글이 지니는 기능으로 본다면, 허엽 중간본이 가지는 의의는 적지 않았습니

다. 두 번째 장인 부모장의 원문과 번역문의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막에 표시되는 원문의 붉게 표시한 부분은 차자 구결입니다. 번역문은 현대 표기법으로 바꾸었습니다.

아버지는 하늘 같고 어머니는 땅과 같은지라.
수고로이 나를 낳으시고 부지런히 젖을 먹이시고 힘들게 길러내시니,
부모의 은혜와 덕은 하늘 같이 끝이 없느니라.
한아버와 할머니는 내 아비 어미를 낳으시니, 부모와 더불어 다름이 없느니라.





부모를 '아비 어미', 조부모를 '한아비와 할미'로 번역하는 점이 눈에 띄니다. 여기에 나오는 문장을 읽고 이해하려면 기초 공부가 탄탄해야 할 것입니다. 한글 번역문이 옆에 있으면, 문장을 익히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부모 장의 앞부분을 보여드렸습니다. 많은 공력을 기울여 판각을 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17세기 중엽, 이후원 간본의 편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3-4

17세기 중엽, 이후원 간본의 편찬

지난 강의에서는 16세기 말 허엽 간본의 편찬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17세기 중엽, 이후원 간본의 편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 중엽은 『경민편』의 사회적 생명력이 획기적으로 확산되는 시점이었습니다. 효종 말에서 현종 초, 서인(西人) 진영의 유력 정치인이었던 이후원(李厚源, 1598 - 1660)이 효종의 허락을 얻어 이 책을 편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간행은 여러 사정으로 지연되었던 까닭에 효종 사후, 현종 초년에 현실화됩니다.

이후원이 이 책을 간행한 이후 『경민편』은 전국의 방백과 수령이 참고하는 중요한 문헌으로 부상했습니다. 이후원이 간행 작업을 하며 저본으로 삼은 자료는 해서(海西) 지방에서 어렵게 구한 필사본(筆寫本)이었습니다. 이후원은 애초 경민편을 간행하기로 한 뒤 책을 구하지 못해 시간을 끌다가, 이 사본을 구해 한글로 번역하고 편찬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원은 『경민편』의 초간본을 직접 보지 못했거니와, 상허본이나 허엽 간본 또한 참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큼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후원 간본은, 앞선 시기의 여러 간본이 이루었던 성취 혹은 변화와는 무관하게 이후원의 방식대로 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한글 번역문을 실은 허엽 간본을 참고했다면 작업하기가 더 수월했으리라 짐작되지만, 이후원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이후원 간본의 표지와 목록입니다.

이후원 간본은 편장 구성이 상허본이나 허엽 간본과는 다릅니다. 이 간본은 모두 1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허본과 비교하여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허엽 간본에서 첨가된 군상(君上) 장은 빠져 있습니다. 반면 노주(奴主) 장은 족친(族親) 장과 인리(鄰里) 장 사이에 배치되었습니다. 이는 ‘노비와 주인’의 관계를 가족 질서 속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이후원의 의도 속에서 재구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원은 부록으로, 송 대 지방관들의 유속문(諭俗文) 4종을 실고 또 16세기 말 강원도 감사를 지냈던 정철(鄭澈)이 지은 훈민가(訓民歌)를 실었습니다. 송 대 지방관들은 주자의 학문을 이어받은 학자들입니다. 이후원 간본은 분량이 늘어나고 서인의 정치적 성격이 드러나며 또한 주자학의 분위기가 강화되었습니다. 상허본, 허엽 간본, 이후원 간본 사이의 차이는 보시는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원 간본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자료는 『훈민가(訓民歌)』입니다. 『훈민가(訓民歌)』는 정철이 강원 감사로 재직할 때 지은 작품으로, 모두 16개 단가(短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18수였는데 2수는 가사는 없이 제목만 실려 있습니다.

『훈민가(訓民歌)』는 단가마다 주제를 드러내고 그 의미를 간략하게 가사 형식으로 풀이하였습니다. 16개 가사의 제목은 '부모[父義母慈]', '형제[兄友弟恭]', '군신[君臣]', '자식[子孝]', '부부[夫婦有恩]', '근면한 농사짓기[無惰農桑]', '도적질 금지[無作盜賊]', '도박과 소송 금지[無學賭博, 無好爭訟]' 등입니다.

『훈민가』에서 다루는 주제는 '군신[君臣]', '나이에 따른 질서[長幼有序]', '친구 사이의 신뢰[朋友有信]' 등 몇 가지를 제외한다면 대체로 『경민편』에 실려 있습니다. 『훈민가』는 『경민편』의 생각을 바탕으로 하면서 『경민편』에 부족한 점을 보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원이 『훈민가』를 『경민편』의 부록으로 보완한 까닭은 이 가사가 상민들이 접근하기에 편했기 때문이었는데, 『경민편』의 원 체제에서 빠져 있던 군신 이하의 세 항목을 이 가사를 통하여 보완할 수 있는 점 또한 의미 있게 평가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원 간본은 국가에서 간행했기 때문에 이전 간본들에 비해 깔끔하게 잘 만들어졌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번역 수준 또한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원 간본의 번역문에서 보이는 변화 양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구결을 한글로 표기했습니다. 상허본과 허엽 간본에서 이용했던 차자 구결이 이후원 간본에서는 한글 구결로 바뀌었습니다.

한글 구결은 16세기 한글 번역서에서도 이미 나타났으므로, 이후원 간본만의 창안은 아닙니다. 16세기 언해서의 구결 표기는 차자(借字) 구결과 한글 구결 두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중종 대의 『여씨향약언해』, 선조 대의 허엽 간본은 차자 구결을 달았고, 『번역소학』, 『소학언해』 등은 한글로 구결을 표기했습니다.

둘째, 번역문에서 필요하면 한자를 노출하고, 한자마다 해당 글자의 한글음을 병기하였습니다. 원문에 한자음을 달지는 않았지만, 번역문에서는 한자어를 그대로 드러내고 음을 달았습니다. 이를테면 '조부모(祖父母)'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조부모'의 한자어 사이에 한글로 표기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한자어를 한글로 번역한 경우는 대체로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이점은 허엽 중간본의 방식에 크게 대비됩니다. 허엽 중간본은 '조부모(祖父母)'를 '하나비와 할미'의 순한글로 번역하였습니다.



이후원 간본은 간행된 이후, 전국에 보급되며 활용되었습니다. 특히 강령 범죄가 일어나거나 유교적 문화가 덜 발달한 지역에서는 이 책으로 지역민을 계몽하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시기 경민편을 활용하는 양상 가운데 다음과 같이 특기할만한 사실을 꼽아 볼 수 있습니다. 1693년 제주목사를 지낸 이기하(李基夏)는 이후원 간본에 자기의 의견을 덧붙여 판각하고 보급했습니다. 이후원 간본을 그냥 사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극적인 태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면은 이기하가 간행한 간본 사진입니다

박세채(朴世采)는 이 책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중시하고 지방관으로 나가는 자기의 지인이나 제자에게 교육 자료로 활용하도록 권유하였습니다. 특히 그는 상민(常民)을 대상으로 경민편을 읽도록 했습니다. 박세채는 이와는 반대로 사족(士族)의 초급 교육서로 이이의 격몽요결(擊蒙要訣)을 거론했습니다.

상민에게 경민편을 읽히자는 박세채의 의견은 원 편찬자 김정국의 의도를 구체화하는 모습이었는데, 실제 18세기 영조 대에는 정부 차원에서 이 책으로 면리의 주민을 교육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18세기 전반, 송인명 이정숙 간본의 편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3-5 18세기 전반, 송인명 이정숙 간본의 편찬

지난 강의에서는 17세기 중엽, 이후원 간본의 편찬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18세기 전반, 송인명(宋寅明) 이정숙(李廷燾) 간본의 편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민편』의 간행과 유통의 역사에서 18세기 중반의 영조 치세기는 특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시기에 경민편의 증보본이 출현하여, 기존의 간본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경민편이 활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내용을 더한 증보본(增補本)은 평안도 감사 송인명(1689-1746)과 경상도 상주목사 이정숙(1674-1736) 두 사람이 편찬하여 제작했습니다. 이들 두 지방관이 증보본을 만들어 보급한 이유는 평양과 상주 두 지역이 1728년 무신란 곧 이인좌란의 주요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신란은 영조와 노론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일으킨 반란으로 조선을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무신란 이후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 많은 대책을 세우고 실행했는데, 평안도와 상주의 지방관들 또한 이 지역의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방면으로 펼쳤습니다. 경민편 보급은 그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송인명과 이정숙의 두 간본은 두 지역의 지역성과 시대성을 더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오른쪽 이미지는 송인명의 증보본, 왼쪽은 이정숙 증보본의 일부입니다.

송인명 간본은 1729년 영조 5년부터 1730년 사이에 평안도 감사를 지낸 송인명(宋寅明, 1689-1746)이 평양에서 간행했습니다. 송인명은 기존 이후원의 간본에 자신이 직접 지은 8조목의 경계문, 곧 8계를 덧붙여 증보본을 마련했습니다. 『경민편』간행을 청원하는 이후원의 상소문, 김정국의 서문, 13개 편 장의 본문, 진덕수 등 송대 지방관의 권유문, 정철의 훈민가에 송인명의 8계를 더한 구성을 볼 수 있습니다.

8계는 각 조마다 4·4조 한문 가사 형식으로 원문을 먼저 제시하고 이어 한글 번역문을 덧붙였습니다. 한문 가사에 한글 음을 병기하지 않았고 구결도 달지 않았습니다. 한문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읽고 이해하기에는 그렇게 친절한 형식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8계에는 모두 다섯 번째 구를 '슬프다 서넉 백성 이어[唉! 西之民]'로 반복하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각 조목마다 경계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구체적인 처벌 규정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8계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아, 8계는 상허본이나 이후원 간본에서는 볼 수 없던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남녀의 욕망과 간음을 다룬 3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나이와 여자의 욕심은 곧 큰 독으로 막아야 한다.
혼인은 반드시 중매를 세워서 하며, 음간 하면 처벌될 것이다.
슬프다 서녘 백성이여, 혹 억지로 빼앗기를 일삼는구나.
어찌 새와 짐승을 책망하리오. 스스로 벌을 받는도다.

8계에서 언급하는 내용은 크게 보아 송사(訟事), 혼인과 가족 관계, 농사, 관장(官長)과 백성의 관계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송사와 관련된 항목은 두 가지입니다. 지친(至親) 간의 송사, 송사하기 좋아하는[好訟] 풍속을 문제 삼았습니다. 지친과 같은 아주 가까운 혈육 사이에서부터 송사가 일어나고, 또 일상생활에서 소송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민들의 세계에서 소송이 자주 일어나는 현상은 조정해야 할 분쟁과 갈등이 많았음을 가리킵니다.

가족, 친족과 관련해서는 인후자(人後者), 사위와 아들의 관계를 분명히 하여 재산 분쟁을 일으키지 말아야 함을 거론하였습니다. 인후자는 가계 계승을 위해 들인 양자(養子)를 말합니다. 조선에서는 종법(宗法)이 확산하면서 가계 계승을 위한 방도로 양자를 두는 관행이 널리 확대되었습니다. 가계 계승은 재산의 승계와 맞물리기에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고, 여기서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많았습니다.

남녀의 욕망을 언급한 조항에서는 혼인과 혼인의 유지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정상적인 중매 절차를 거쳐 혼인하지 않은 채, 타인의 여자를 강탈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본다면, 이러한 일 또한 이 지역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방민과 관장(官長)의 관계를 거론한 점은 흥미롭습니다. 관장은 부모와 같다는 점을 들어, 관장에게 허물이 있어도 숨기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소청(訴請)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관장을 비판하고 소청을 내는 일이 흔히 일어나고 있던 현실을 반영한 조항이라 하겠습니다. 이 계목은 무신란 이후 권력이 가장 우려하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농업을 떠나 말업(末業)에 종사하지 말고 본업(本業)에 힘써야 함을 강조한 마지막 항목은 『경민편』에서 거론했던 농사일을 중시해야 한다는 내용과 비슷합니다. 말업은 상공업을 의미합니다.



송인명이 제시한 8계는 평안도 지역에서 흔히 일어나던 범죄, 사회적 갈등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송인명 간본은 기존 이후원 간본에서 볼 수 있던 여러 유형의 문제와 함께, 이 지역 고유의 지역성, 그리고 시대성을 더하여 구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으로 살핀다면, 송인명 간본에서 포착하는 갈등의 폭이 이전 간본에 비해 훨씬 넓어지고 시의성을 더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정숙 간본은 1730년 상주 목사 이정숙이 송인명 간본에 자신이 지은 가사를 덧붙여 간행했습니다. 송인명 간본보다 조금 늦은 시점에 멀리 평양에서 간행된 책을 구하여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정숙이 증보하여 덧붙인 내용은, 송인명이 증보한 8계와 비교할 때 분량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지만, 형식은 서로 비슷했습니다.

이정숙은 상주 지역민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을 4언시 104절로 압축하여 만들고 이를 한글로 풀이했습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적지 않은 분량에 담되, 쉽게 읽고 이해하도록 하는 가사(歌辭) 형식을 취하였습니다.

4·4구의 104구절은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볼 때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16구절에서는 이 지역에 교화가 크게 실행되어 지역민들이 삶을 즐기던 평화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17구절 이하 32구절까지는 백성의 풍속이 순후함을 잃어 윤리와 강상이 무너진 현실을 거론하였습니다. 33구절부터 48구절까지는 도덕 교육이 시행됨을 밝히고, 이어 49절부터 마지막 구절까지는 옛 풍속과 질서를 회복하는 방안을 노래했습니다. 화면은 이정숙이 증보한 가사가 시작되는 첫머리입니다.

1728년의 무신변란이 불러온 정치적 위기는 조선의 위정자로 하여금 『경민편』의 가치를 새롭게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원 간본을 재차 보급하려는 움직임이 일부 군현에서 일어났고, 이후원 간본에 새로운 내용을 덧붙여 증보한 책이 평양과 상주에서 출현했습니다. 지역에 따라 소장하고 있는 책판의 성격이 달랐지만, 전국 각지에서는 손에 넣을 수 있던 책판으로 책을 찍어 내어 지방민의 교육에 이용했습니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 경민편을 전국적으로 보급하려는 움직임은 1745년 이후에 나타났습니다. 1745년 영조 21년, 중앙 정부에서는 『경민편』을 적극 보급하여 전국의 군현과 면리(面里)에서 이 책을 교육 자료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이로부터 얼마 동안 『경민편』 활용의 역사에서 한 획기를 그을 정도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보급본은 이정숙의 증보본을 저본으로 하여 마련되었습니다.



『경민편』보급을 앞서 주창한 인물은 좌의정 송인명이었습니다. 송인명은 윤리를 무너트리는 옥사(獄事)가 경외(京外)에서 많이 일어나는 현실을 우려하며, 그 대책의 일환으로 이 책의 보급을 거론했습니다. '문자를 이용한 가르침'[文字之敎]의 힘을 믿는 제안이었습니다. 송인명은 경민편 교육의 방법으로, 전국의 면리마다 사장(師長) 곧 훈장을 정하여 그들에게 교육을 맡기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1745년 송인명의 건의 이후, 8도에서는 중앙에서 내려보낸 저본으로 재인쇄, 지방민들에게 보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1745년 6월에 전라도의 감영[공 完營本]과 충청도의 감영[공 錦營本]에서 경민편을 개간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영본과 금영본은 하나의 저본으로 책을 만들되, 그 저본에서 필요한 내용을 취사 선택해서 판각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완영본은 이후원 간본의 원문·부록과 함께 송인명과 이정숙이 증보한 경계문을 모두 수록했습니다. 형태상으로는 최후의 간본인 이정숙 간본과 동일했습니다. 금영본은 송인명과 이정숙이 작성한 경계문은 실지 않았습다.

두 책에서 공통되는 부분은 한결같이 한 면당 10행 17자로 글자를 새겼으며, 각 면에 실린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는 10행 20자로 새긴 이후원 간본과 비교됩니다. 보시는 사진의 왼쪽은 완영본, 오른쪽은 금영본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경민편을 증보하거나 보급하려는 움직임은 이정숙 간본 이후 나타나지 않았습다. 19세기에도 이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이 시기 경민편에 대한 지방 권력의 관심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다. 몇몇 지방관들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다변화된 형태로 경민편을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1832년 순천부사 홍중섭(洪重燮)의 움직임은 특기할만합니다. 이 해 순천부사에 임명되었던 홍중섭은 경민편을 간행하여 관내 각 면(面)에 보급하였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때의 간본은 홍중섭의 서문, 김정국의 서문, 13장의 본문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선 시기 간본에 실렸던 유속문, 훈민가, 송인명 이정숙의 경계문은 제외된 단출한 내용입니다.

현존하는 경민편으로는 구성이 가장 간단하면서도 깔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독자의 처지에서 보면 본문의 내용에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홍중섭은 이 책자를 각 면마다 3부씩 나누어 보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순천부는 18개 면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주암면(住巖面), 황전면(黃田面)의 두 면에 각기 3부씩 보냈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6세기 초, 황해도 감사 김정국이 편찬, 간행한 경민편이 이후 19세기까지 활용되는 양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조선에서 하나의 책이 다양한 형태로 변모하며 활용된 사례로 경민편을 빼고 찾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경민편의 편찬, 간행 양태는 특별한 모습을 보입니다.

처음 간행된 이후 여러 간본이 나온 과정을 살펴보면, 1519년 황해도에서 처음 간행되었다가, 1579년의 경상도를 거쳐 1658년에는 전국에 보급됩니다. 1730년 무렵, 평양과 상주에서 송인명과 이정숙 증보본이 만들어지고, 이후 1745년에는 이정숙 증보본을 저본으로 한 책이 다시 전국에 보급되는 정책이 시행됩니다.

황해도 지역에서 출발하여 전국으로 확산되어 이 책이 널리 이용된 이유는, 지방민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계몽을 통해 범죄의 문제를 알려주어야 한다는 경민편의 기본 방침이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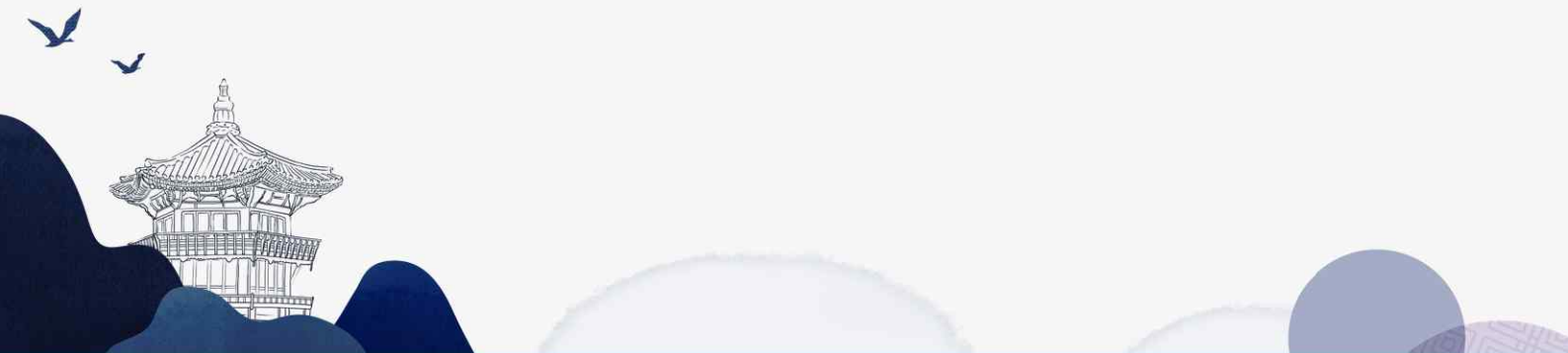
조선의 권력은 이 책을 통하여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찾았습니다. 지방민들은 이 책을 통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유교 지식과 이념을 간단하게나마 익힐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민편은 지방민들의 생각과 습속을 유교적인 방식으로 바꾸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교적 문화의 한 뿌리를 이해하는데도 경민편의 간행과 활용에 대한 정리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경민편의 이해'의 후속편으로 '경민편 읽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Lecture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WEEK

3

Understanding Gyeongminpyeon

3-1

Kim Jeong-guk and Gyeongminpyeon

Hello, students. I'm Jeong Ho-hun, one of the lecturers in this course titled <Revisiting Korean Classics>, and I'm going to give you a lecture about Gyeongminpyeon. This is the third lecture of this course, and I would like to go on with it in the theme of 'understanding Gyeongminpyeon.'

This book was produced in 1519 when Kim Jeong-guk served as the Governor of Hwanghae-do, and was intended to educate local residents. So, it would be proper to say that Gyeongminpyeon is a book by a local magistrate for the local residents. This book, which had rare content in Joseon then, was written by Kim Jeong-guk as an individual, but it was likely to be widely distributed throughout other regions outside Hwanghae-do because it reflected the political ideology of Gimyo sarim, who were in power by this time.

However, the book was forgotten for some time after Kim Jeong-guk was dismissed due to his involvement in the Literati Purge of 1519. About 15 years later, he returned as the Governor of Jeolla-do, and there are traces of the book being used again, but it was forgotten again after his death.

Interestingly, since the end of the 16th centur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of Joseon paid a lot of attention to this book and used it after supplementing it several times. If you focus on the compilers, you can find Heo Yeop's version at the end of the 16th century, Yi Huwon's version in the middle of the 17th century, and Song Inmyeong's and Yi Jeongsuk's versions in the 18th century.





The reason why Gyeongminpyeon was enlarged many times is that these powerful people judged that the practical effect of this book was not small. Compared to the initial publication, later versions changed a lot with increased contents. This lecture will examine the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the use of Gyeongminpyeon in Joseon history.

Through this lecture, I hope you will understand what was Joseon's strength to maintain the state for so long time. Furthermore, I hope you will find the traditional basis of the consciousness that shapes the lives of modern Koreans.

Kim Jeong-guk was a scholar and bureaucrat in the first half of the 16th century. In this session, I'm going to summarize his life and talk about his motivation for compiling Gyeongminpyeon. The picture on the screen is a page from Seongni Daejeonse Jeoryo (Essentials of the Great Collection of Neo-Confucianism). It's a book that summarizes only the important points of the massive Seongri Daejeon. It was published in Naju in 1538, and shows Kim Jeong-guk's character as a scholar. His tomb is now in Paju.

Kim Jeong-guk was born in 1485, the 16th year of King Seongjong, and died in 1541, the 36th year of King Jungjong. The family clan is from Uiseong. Uiseong was also called Munso in the past. Kim Jeong-guk himself enjoyed using Munso. His courtesy name is Gookpil, and he used Sajae or Eunhyu as pen names. His father is Kim Yeon, who served as a chambong (lower rank official) at Yebinsi (Office of Formal Reception), and his mother is from Heo clan of Yangcheon, the daughter of Heo Ji, a county magistrate. His parents passed away when he was young. His older brother is Kim An-guk, a scholar and bureaucrat of the King Jungjong. He is said to have learned from Kim Goengpil.





Kim Jeong-guk won the first place in a special examination of the higher civil service in 1509, the 4th year of King Jungjong, was endowed reading leave in 1514, and became the Governor of Hwanghae-do in 1518. The Governor of Hwanghae-do was a high position of the second junior rank, and Kim Jeong-guk had not experienced an external position until he took it. He had worked as a bureaucrat in the royal court, serving successively and extensively in key posts such as Secretary in the Ministry of Personnel, Censor, and Royal Secretary. The bureaucrats who worked in the royal court were called Gyeongwan (Capital Official).

Kim Jeong-guk is usually considered a member of Gimyo sarim. His political activities and thoughts had many elements in common with those of Gimyo sarim. In order to understand him properly, it is necessary to look at Gimyo sarim of the period of King Jungjong.

Gimyo sarim refers to a group of Confucian scholars and bureaucrats who lost their lives or were politically prosecuted when a political purge, known as Gimyosahwa (the Third Literati Purge in 1519), including Jo Gwangjo, Kim Sik, and Bak Hun. They tried to change Joseon by actively presenting new laws and policies for five to six years before the purge.

Although the political activities of Gimyo sarim have many aspects, what best describes them is that they were trying to spread the basic ideology of Neo-Confucianism and the basic examples of it throughout Joseon society. They distributed the important literature of Neo-Confucianism such as the Elementary Learning, Zhu Xi's Revised Version of the Lu Family Community Compact, Zhu Xi's Family Rituals, and tried to practice the contents in social level. At that time, there were many forces in the political world that did not agree with the theory of Neo-Confucianism, so there was a severe political conflict over it, and eventually a political purge took place in 1519.



Kim Jeong-guk also shared his thoughts and cooperated with them. His older brother Kim An-guk also joined the effort to transform Joseon, as a member of Gimyo sarim. In November 1519, when the purge occurred, Kim Jeong-guk, who was serving a second term as the Governor of Hwanghae-do, was dismissed from his official position and retired to Goyang. Here, he called himself palyeogeosa (a man with eight things), concentrated on his study and devoted himself to writing and teaching. He was restored to the Governor of Jeolla-do in his last years and died of illness while serving as the Governor of Gyeongsang-do.

Let me introduce a document that shows the activities of Gimyo sarim. This is a Translation of Elementary Learning published in 1518. The Elementary Learning had already been introduced since the late Goryeo Dynasty, but it was not read that much. Gimyo sarim actively carried out the 'Campaign to Distribute Elementary Learning' and tried to spread Neo-Confucianism throughout Joseon. Translation of Elementary Learning was the book made as part of it.

This book was first published in Eulhaeja, a metal type. It served as a standard study book and translated version of Elementary Learning. Moreover, it was one the pieces of literature that contributed to the intellectual revolution and cultural transformation based on Neo-Confucianism in Joseon. The picture on the right is a section of the Elementary Learning. It presented the original text first and then attached a Korean translation. For the original text, the sound of each Chinese character is added in Korean, and each phrase has gugyeol (attachment to part the phrase and render it understandable).



Kim Jeong-guk made this book with the idea of “defining 13 crimes that are deeply related to human duties and easy for the people to commit in their daily lives, and giving what little help it could give to the foolish people to avoid evil and pursue good,” and expected the county magistrates under him to use it. Gyeongminpyeon was a book published by a Governor seeking ways for local residents to live in social order without committing crimes, with his own answers. As the name ‘warning the people’ shows, Gyeongminpyeon was crea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or, a state agency, and the local people. In that respect, it was also a guiding book for people, published in the leadership of the state's public authority, and a political textbook used by local officials on the front line of local politics.

The background of Kim Jeong-guk's publication of this book can be found in his writings reflecting on the days of Hwanghae-do Governor. Let me read an important part.

When I was the Governor of Hwanghae, a man named Yi Dong lived on the coast. While having a meal, he fought with his father and hit him with a bowl.

"A father-son relationship is like that of heaven-earth or monarch-subject. How could your body be without your father? Therefore, if you serve your parents well, you are a devoted son, and if you beat and swear, you are a villain. You hit your father with a bowl. This is a crime of death by law, just like the earth sins against heaven and a subject sins against the king. Therefore, I conclude this trial by sentencing you to death."

Imposing punishment without teaching is deluding the people. The behavior of Yi Dong resulted from lack of teaching.

Yi Dong, who lived on the coast, was tried for beating his father, which was a capital crime under the law at the time. Kim Jeong-guk realized that he had committed this crime because he did not know that a son would be severely punished if he beat his father or committed other unfilial deeds. Furthermore, Kim Jeong-guk thought that it was deceiving people to punish them without teaching them why they should not commit crimes and what punishment they would get if they committed crimes.



So, he informed Yi Dong about this, and Yi Dong listened to him and realized the importance of father-son relationships and that crimes against parents were very serious offense, and begged for mercy. Presumably, Kim Jeong-guk's writing of Gyeongminpyeon was largely affected by his experience as a Governor.

Gyeongminpyeon was a book to prevent crime. The main theme of this book is that punishing someone according to the penal code after he did something wrong is not the best way, and it is best to teach people first why they should not do such a thing before committing a crime. We can read his thought that emphasizes both the problem of ignorance and the need for enlightening ignorance.

Kim Jeong-guk's will to teach local people to realize the evil of crime and avoid it, formed while serving as the provincial head of Hwanghae-do, was the outcome of Confucian reasoning to rule out the coercion and violence of punishment, or, to narrow it down, it was the result of the sincere pursuit of Neo-Confucianism. In Neo-Confucianism, intellectual and moral change of individuals through learning was considered important.

Kim Jeong-guk appropriately digested the Confucian culture and ideology of Neo-Confucianism, expanded continuously during the 14th and 15th centuries, at his position and condensed it into Gyeongminpyeon while serving as a provincial head.

The painting you see on the screen is a town castle in Gonyang, Gyeongsang-do, in the early 19th century. It emphasizes the jail. It's a much later picture compared to the 15th and 16th centuries, but I think it'll help us infer the situation at the time when Gyeongminpyeon was published.

The power severely restrained and punished those who committed crimes, and in extreme cases took their lives. Kim Jeong-guk tried to present a way to avoid punishment for committing crimes through the compilation of Gyeongminpyeon. In the next class, we will look at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Gyeongminpyeon.



3-2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Gyeongminpyeon

In the last lecture, we looked at Kim Jeong-guk and Gyeongminpyeon. In this lecture, we will look at the composition and characteristics of Gyeongminpyeon.

The first edition of Gyeongminpyeon currently has yet to be discovered. The original Gyeongminpyeon, which, anyone can see, was published when Kim Jeong-guk served as the Governor of Hwanghae-do, has not yet been identified. Therefore, understanding this book is difficult from the start. The composition and content of the book can only be inferred from later publications.

The earliest known publication is Sanghuh Memorial Library of Konkuk University collection, referred to as Sanghuh version. This is not the first edition of Kim Jeong-guk's Gyeongminpyeon, but it corresponds to the early edition that is not far away from the first one in time. If you look at it, you can guess what the first edition looks like, to some extent.

The content of Gyeongminpyeon consists of 13 chapters. Starting with Chapter 1, Parents, they were arranged in the order of Husband and Wife, Siblings, Family Relatives, Neighbors, Fighting, Diligence, Saving, Fraud, Adultery, Larceny, Homicide, and Slave and Master.

The 13 themes were selected using the penal code of Literal Explanation of the Great Ming Code and Gyeonggukdaejeon (National Code). These themes cover the major crimes and deviations that local people can commit in their daily lives. If you look closely at the sequence of 13 Chapters, they are divided into several types. Chapters 1 to 5 consists of topics centering on the subject, and deals with parents, family, and relatives. Neighbors are not included in the family or relatives, but they still are a community that exists outside the family.





From Chapter 6 Fighting to Chapter 12 Homicide, the themes were based on crime or deviation. They are criminal acts that can be committed in everyday life. Of course, diligence that emphasizes working hard for a living, and saving that encourages people to live frugally instead of wasting recklessly have nothing to do with crime, but these chapters deal with laziness and waste as criminal acts.

The last Chapter, Slave and Master, is unique. This chapter deals with crimes that can occur between a slave and his or her master. If it were related to the subject, it would have to be placed in the first half, but it doesn't. That doesn't mean that a slave is a criminal. However, Gyeonggukdaejeon deals with slave related contents in the penal code. You can see the unique idea of understanding slaves as an existence bound to crime, and I don't know if the composition of Gyeongminpyeon was also influenced by such idea.

Each chapter first explains why you should not commit such crime, and then includes the punishment rules for the crime. In other words, each chapter contains two types of contents with different characteristics, but when talking about punishment regulations, it makes clear that they are in the 'law.' This configuration is repeated in all 13 themes.

The reason why you shouldn't commit a crime is generally explained by Confucian morality and common sense, and for the penal regulations it used the penal code in the Great Ming Code and Gyeonggukdaejeon. Since the Great Ming Code was used as a basic book for the penal code in Joseon, most of the penal codes mentioned in Gyeongminpyeon came from it. Punishment was mainly based on 5 types of punishment in the Great Ming Code.

This is the Literal Explanation of the Great Ming Code. In 1395, the 4th year of King Taejo's reign, the government made a literal explanation of the Great Ming Code in idu script so that penal officers could easily use it, and as Gyeonggukdaejeon was completed, the basis for the use of the Great Ming Code was clearly set as law. Of course, the Joseon government established and utilized Joseon's own penal code that was not included in the Great Ming Code, but the Great Ming Code was the main reference in most cases.



The Literal Explanation of the Great Ming Code on the screen was published in 1686, and is currently kept by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Considering the ownership stamps on the first page saying, 'Naegak' and 'Kyujangjibo,' it must have been one of the books kept in Kyujanggak (Royal Archives) in the late Joseon Dynasty.

It presents the original text in Literary Chinese, and then explains them using small idu scripts. I zoomed in on the explanation. Since the punishment of quartering was replaced by dismemberment on the wheel in Joseon, you can see that 'quartering' was interpreted as 'dismemberment.'

These are the five types of punishment stipulated in the Great Ming Code. It is divided into five grades, from the flogging to the death penalty, and each sentence varies depending on the severity of the crime. The death penalty has two types: hanging and beheading, and beheading was the heavier punishment. Dismemberment is not included in the five types, but it was applied to the actual regulations. The picture shows the execution of beheading.

If we take the first chapter, Parents, as an example, you can get more concrete idea of the above description of this book. The spacing of the quotes was randomly done to match the meaning, and the circles mark the missing letters. The words in red are gugyeol, or phrase parting, and the main text is written only in Literary Chinese. Since the original text is not translated into Korean, it is very difficult for the people with poor reading ability of Classical Chinese. This screen presents translations to help you understand.

The sentences have borrowed letters of gugyeol to help readers understand. '五,' '飛,' '爲時古,' '爲時尼,' '是尼羅,' '隱,' '爲面,' etc. are the borrowed letters of gugyeol read as 'oh,' 'na,' 'hashigo,' 'hashini,' 'inira,' 'eun,' and 'hamyeon.' It can be seen that the Korean gugyeol was written using the sounds of Chinese characters.

As for the reason for filial piety, it explained, "father is like the sky and mother is like the earth." They gave birth to me with all the pains, diligently breastfed me, and worked hard to raise me, so the grace and virtue of parents are as endless as heaven."



If you ill-treat your parents or grandparents, it said, “if you murder your grandparents or parents intentionally, you will be put to death by dismemberment, if you hit them, you will be beheaded, and if you scold them, you will be hanged. If you don't do what they told you to do, and if you don't work hard to support them, you'll get 100 flogs.”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sin, the punishment will be dismemberment, beheading, hanging, or flogging.

In Chapter 1 of Gyeongminpyeon, five crimes committed against parents and grandparents are mentioned. They are murder, beating, swearing, irreverence, and accusation. The corresponding punishment regulations are presented for each crime, and they are divided into several grades from dismemberment to 100 flogs. The punishment was relatively harsh because the Literal Explanation of the Great Ming Code defines filial impiety as one of the ten evils and punishes it severely. The contents of Chapter 1 of Gyeongminpyeon are covered by five articles of the Literal Explanation of the Great Ming Code and Gyeongminpyeon summarizes their core contents. In the case of accusation, it was limited to the one against parents, and the details of punishment were not elaborated but only written as ‘severe.’

Pre-modern punishment was characterized by controlling and leading individual behavior based on violence, pressure, and coercion, and so was the operation of punishment in Joseon based on the Great Ming Code. Strong punishment helped to suppress crime and maintain order. But that wasn't all. Punishment alone couldn't change criminals or reduce the occurrence of crimes. Gyeongminpyeon emphasizes that punishing crime and social deviations by law is not everything that can be done, but it is necessary that local people be led first to realize the fundamental problems of criminal behavior and avoid them. The preface of Gyeongminpyeon is a clear statement about this.

“The punishment and the law were all made out of the benevolence of the king of old time who loved his people. Wouldn't it be more of ‘netting to the people’ if they were to be detained by law without leading them to morality first?



While writing this book, I always discussed reason by looking at the basics because I wanted the people to feel it with their hearts and be motivated, and I cited the law as evidence because I wanted them to avoid evil with fear. And I used simple words and plain sentences to make it easy for them to understand without learning."

Kim Jeong-guk's idea that intellectual awareness and moral stimulation of members rather than punishment should be the foundation to prevent crime and maintain social order was the first declaration in the local political scene during Joseon Dynasty. You can find the practical meaning of Gyeongminpyeon here.

The peculiarity of the ways of Gyeongminpyeon is evident compared to the edification and punishment measures implemented in Joseon in the 15th century. Immediately after its founding, Joseon paid attention to edification and punishment as a means of maintaining social order and preventing the people from deviating, and implemented related policies.

Regarding edification, they emphasized the ethics of samgang (Three Fundamental Bonds). Three relationships between the monarch and subjects, parents and children, and husband and wife were considered the most important, and the ethics of chung (loyalty), hyo (filial piety), and yeol (distinction) for each relationship was cultivated and practiced. To this end, the government compiled and distributed Samgang Haengsildo (An Illustrated Guide to the Three Bonds) and honored exemplary people.

As mentioned earlier, in the case of punishment, the basis for controlling crime was prepared using the Great Ming Code as the basic reference for sentence. A wide range of criminal acts, including filial impiety, larceny, fights, fraud, and swearing were strictly punished by the provisions of 5 types of sentences. However, during this period, there was no policy to prevent crimes of people, and not a book was written that contained such idea. In other words, there was no effort to approach the problem of criminal behavior from the perspective of edification and teach the people to enlighten them.



Therefore, Kim Jeong-guk's Gyeongminpyeon was a book with a remarkably novel idea. Through Gyeongminpyeon, Kim Jeong-guk presented a new standard by breaking with existing ideas in the political culture by suggesting that, as the basis of social and political management, the members' moral awareness is more important than punishment. It would not be an exaggeration to say that this book has significance that can transform civilization.

Since we already looked at the Literal Explanation of the Great Ming Code, I will briefly tell you about Samgangaengsildo (An Illustrated Guide to the Three Bonds). This is the first edition of Samgangaengsildo. It was made under the order of King Sejong in 1434. This book is made up of articles on the best practices of loyalty, filial piety, and virtue in history, followed by illustrations to explain them in a way that is easy to understand.

The composition of this book is simple, with each written episode paired with an illustration and a poem. It shows historical examples in pictures, which can help you understand it a lot. However, the Samgangaengsildo at this time was written only in Literary Chinese, so it was not easy to understand unless you were a good reader of Classical Chinese.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ng, the original text was translated and published using Hunminjeongeum (Korean script). This is an episode titled 'Yongbanggansa (Death of Yongbang).' Comparing to the episode of the same title in the previous version of Literary Chinese, you can clearly see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books. It would have been a little easier for the reader to understand than the book written only with Literary Chinese. In order to make Samgangaengsildo effective, the government also implemented a policy that people who could read gathered those who couldn't, and read and interpreted the book for them.

This photo shows a monument built by the government to commend the loyalty of a person named Jeong Dam, who was killed in a battle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in 1592. It is located in Yeongcheon, Gyeongsangbuk-do. The state selected and commended loyalists, devoted sons, and virtuous women, expecting more people in the provinces to follow suit, and the families and descendants of those who received the commendation were honored.



In the next session, we'll look at the compilation of Heo Yeop's version at the end of the 16th century.





3-3

Compilation of Heo Yeop's Version at the End of the 16th Century

In the last session, we looked at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Gyeongminpyeon. In this session, we're going to look at the compilation of Heo Yeop's version at the end of the 16th century.

Kim Jeong-guk's Gyeongminpyeon was revived, reprinted and distributed by Heo Yeop (1517-1580), who served as the Governor of Gyeongsang-do in 1579, the 12th year of King Seonjo's reign. Heo Yeop's re-edited version changed the contents in many ways compared to the previously published Sanghuh version.

Heo Yeop's publication of Gyeongminpyeon triggered the widespread popularity of the book in Joseon. At that time, Gyeongsang-do was one of the richest and the most powerful of the eight provinces of Joseon, so even if Heo Yeop's distribution of Gyeongminpyeon was limited to Gyeongsang-do, its scope was incomparably expanded compared to the previous period.

It is also confirmed by the quantity printed at this time that Gyeongminpyeon was widely distributed in Gyeongsang-do. Later, Noh Susin, who wrote Heo Yeop's epitaph, testified that Heo Yeop printed thousands of copies. In 1585, the 18th year of King Seonjo's reign, Gosachwalyo, supplemented and published by Heo Bong, records that Sacheon, Jinju, and Sangju in Gyeongsang-do had printing blocks of Gyeongminpyeon, which are considered to be related to Heo Yeop's re-printed version.

The re-issued version is very rare. The collection of Tsukuba University in Japan is the only known piece today. This is the cover and the first page of the Chapter Monarch, and considering the ownership stamp that says 'anyangwonjang,' it is believed that this book was brought to Japan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and was kept in a library of the bakufu.



The re-issued version of Heo Yeop showed many changes in its composition compared to the Sanghuh version of the earlier edition. At the head of the book are Heo Yeop's foreword to the reprinted edition and Kim Jeong-guk's preface included. These articles clearly reveal the reason Kim Jeong-guk made this book, the original intention and direction of the book, and the circumstance in which Heo Yeop reprinted it as the Governor of Gyeongsang-do. The time of the book's publication is also clearly stated as 'the winter of 1519.'

The biggest advantage of this reprinted version is that it clearly highlights to the readers the proposition of 'edification and punishment' that Kim Jeong-guk had developed as a framework through his preface. Although it does not clearly show whether Heo Yeop referenced Kim Jeong-guk's first edition when publishing this book, these materials help us to infer what it would have looked like in the early days of Gyeongminpyeon.

More importantly, there is new content added. Heo Yeop wrote a separate chapter called 'Gunsang' and placed it at the beginning of the main body. The term 'Gunsang' refers to a monarch. It was not in Kim Jeong-guk's original version, so Heo Yeop's version added one chapter to the existing 13 chapters, making it a total of 14 chapters. The comparison of Sanghuh version, an earlier edition, and Heo Yeop's version is as shown in the table on the screen.

Heo Yeop's version shows a big difference compared to the previous one. First, through the added Chapter Monarch, he emphasizes that the people should be loyal to the monarch and the state, and faithfully perform the duties that the state assigns. Heo Yeop probably thought that the lack of relationship between the monarch, or the state and the people in Kim Jeong-guk's version was problematic and should be supplemented.



This is the full text of the Chapter Monarch written by Heo Yeop. You can find the main points in these two paragraphs. In the first paragraph, he says, "The monarch is the owner of the people and the state is what the people depend on," and emphasizes that the people lead their lives because the state give the grace to foster them. It's interesting to se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ople and the monarch is considered as the one between the father and the son. The second paragraph says the people should faithfully pay the duties given to the people, that is, tax and labor, and help the state if there is any difficulty.

The transcription of Heo Yeop's version is also new. When compared to the Sanghuh version, the original text is similar. It succeeded the Sanghuh version in terms of phonetic borrowing of letters in gugyeol. There was no new change in that respect. However, the original text written in Literary Chinese was followed by Korean translation, which was an unprecedented innovation. It would have been very easy for readers to access this book because it was written both in Classical Chinese and Hangeul. The language barrier was lowered a lot compared to the edition with only Chinese script. Considering the function of Hangeul in understanding the contents of the book, the significance of the reprinted version of Heo Yeop was not small.

Let's look at some of the text and its translation of the second chapter, Parents. The red part of the original text in the subtitles is borrowed letters of gugyeol. The translation was re-written using modern style orthography.

Father is like the sky and mother is like the ear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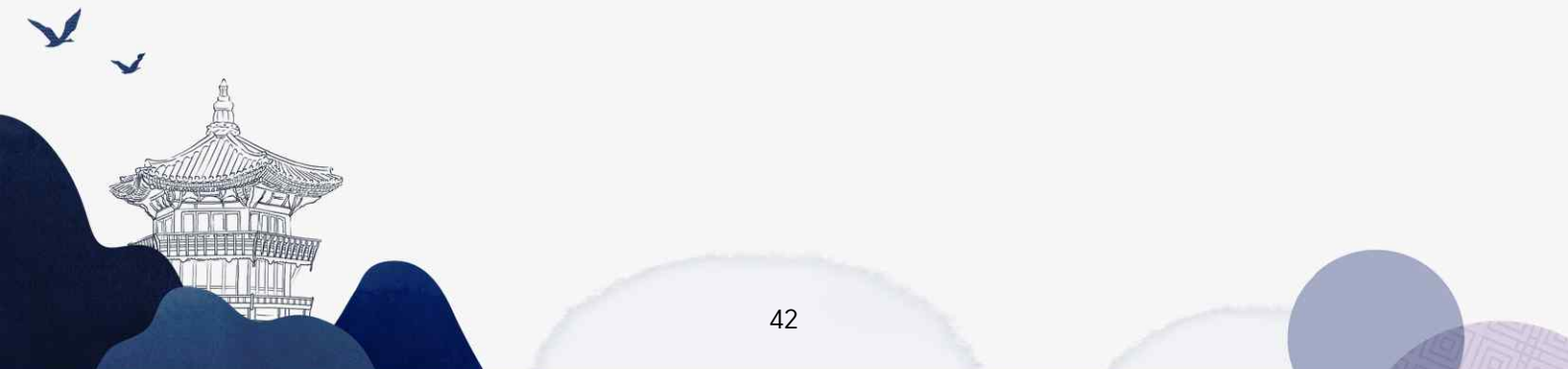
They gave birth to me with all the pains, diligently breastfed me, and worked hard to raise me, so the grace and virtue of parents are as endless as heaven.

Hanabi (Grandfather) and halmi (grandmother) gave birth to my abi (father) and eomi (mother), so they are no different from my parents.



It is noticeable that parents are translated as 'abi and eomi' and grandparents as 'hanabi and halmi.' To read and understand the sentences here, you will need a solid understanding of basic knowledge. A Korean translation next to it will be of great help to learn the sentence. I showed you the front part of the Parents Chapter. You can see that the engraving was done with a lot of effort.

In the next class, we'll look at the compilation of Yi Huwon's version in the mid-17th century.





3-4

Compilation of the Yi Huwon's Version in the mid-17th century

In the last lecture, we looked at the compilation of Heo Yeop's version at the end of the 16th century. In this lecture, we're going to explore the compilation of Yi Huwon's version in the mid-17th century.

The mid-17th century was the period when Gyeongminpyeon's influence on society spread dramatically. Yi Huwon (1598-1660), a leading politician in the Seoin camp from the end of King Hyojong's reign to the beginning of King Hyeonjong's reign, was able to compile this book with the permission of King Hyojong. However, the actual publication was delayed due to various circumstances, and it came to the world after the death of King Hyojong and in the early years of King Hyeonjong.

Since Yi Huwon published this book, Gyeongminpyeon emerged as an important reference for Governors and magistrates across the country. The material that Yi Huwon used as a copy of his publication was a manuscript obtained with difficulty in Haeseo. Yi Huwon, after initially deciding to publish Gyeongminpyeon, took some time because he couldn't get a copy, but was able to get this one, translated it into Korean, and completed the compilation. It is highly likely that he had not seen the first edition of Gyeongminpyeon in person, and did not refer to the Sanghuh or Heo Yeop's versions.

Considering this, it can be said that Yi Huwon's version was produced in his own way regardless of the achievements or changes made by the various copies in the previous period. For example, it would have been easier to work with Heo Yeop's translation, but he did not seem to have done so. On the screen you see the cover and the list of contents of Yi Huwon's version.



His version has a composition different from the Sanghuh or Heo Yeop's versions. This book consists of 13 chapters, which are the same as the Sanghuh version. However, the chapter Monarch added to Heo Yeop's version is missing. On the other hand, the chapter Slave and Master is placed between Relatives and Neighbors. This reconstruction seems to have resulted from Yi Huwon's intention to grasp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lave and the master in the family order.

As an appendix, Yi Huwon added four articles criticizing the customs written by provincial officials of Song Dynasty, and Hunmin-ga (Songs to Teach People) written by Jeong Cheol, who served as the Governor of Gangwon-do in the late 16th century. Provincial officials of the Song Dynasty were scholars who continued the study of Zhu Xi. Yi Huwon's version increased in volume, revealed the political character of Seoin, and also strengthened the traits of Neo-Confucianism. The difference among the Sanghuh, Heo Yeop's, and Yi Huwon's versions can be found in the table you see.

The material that you should pay attention to in Yi Huwon's version is Hunmin-ga. Hunmin-ga is a work written by Jeong Cheol when he served as the Governor of Gangwon, consisting of 16 short poems. Originally, it was 18 poems, but two of them has no lyrics but only the titles. Hunmin-ga has each poem reveal its theme and followed by brief explanation of its meaning in the form of gasa (prose-poem). The titles of the 16 gasa include 'Parents,' 'Brothers,' 'Monarch and Subject,' 'Child,' 'Husband and Wife,' 'Diligent Farming,' 'No Robbery,' and 'No Gambling and Lawsuit.' The topics covered in Hunmin-ga are generally listed in Gyeongminpyeon, except for a few things such as 'Monarch and Subject,' 'Order according to Age,' and 'Trust between Friends.' Hunmin-ga can be said to have supplemented Gyeongminpyeon while based on the idea of it.

The reason why Yi Huwon supplemented Hunmin-ga as an appendix to Gyeongminpyeon was because it was easy for ordinary people to access, and he must have considered it proper to complement the three topics including Monarch and Subject, which were missing from the original composition.



Yi Huwon's version was published by the state, so it gives the impression that it is neatly made compared to the previous editions. You can tell that the translation was also much better.

The changes seen in the translat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gugyeol were written in Hangeul. In Yi Huwon's version, the borrowed letters of gugyeol, which were used in the Sanghuh and Heo Yeop's version, were changed to Hangeul.

Gugyeol in Hangeul already appeared in Korean translations in the 16th century, so it was not Yi Huwon's original idea. In the 16th century vernacular editions, the writing of gugyeol appeared in two ways: phonetic borrowing of letters and Hangeul. Vernacular Explication of the Lu Family Community Compact of the Jungjong's era and Heo Yeop's version of the Seonjo's have gugyeol written in borrowed letters, while Translation of Elementary Learning and Vernacular Edition of Elementary Learning have Hangeul gugyeol.

Second, if necessary, Chinese characters were presented in the translated text, and corresponding Korean sounds were attached to each character. The original text does not have sound script, but the translated text reveals Chinese characters with sound scripts. For example, 'grandparents' are written in Hangeul between the Chinese characters of 'grandparents,' as you can see on the screen. Therefore, the translation of Chinese characters into Korean largely disappeared. This contrasts significantly with the way of Heo Yeop's reprinted version. Heo Yeop's version translated 'grandparents' into pure Korean words of 'Hanabi and Halmi.'

After the publication, Yi Huwon's version was distributed and utilized throughout the country. In particular, in areas where violent crimes occurred or Confucian culture was less developed, there was a strong movement to enlighten the local people with this 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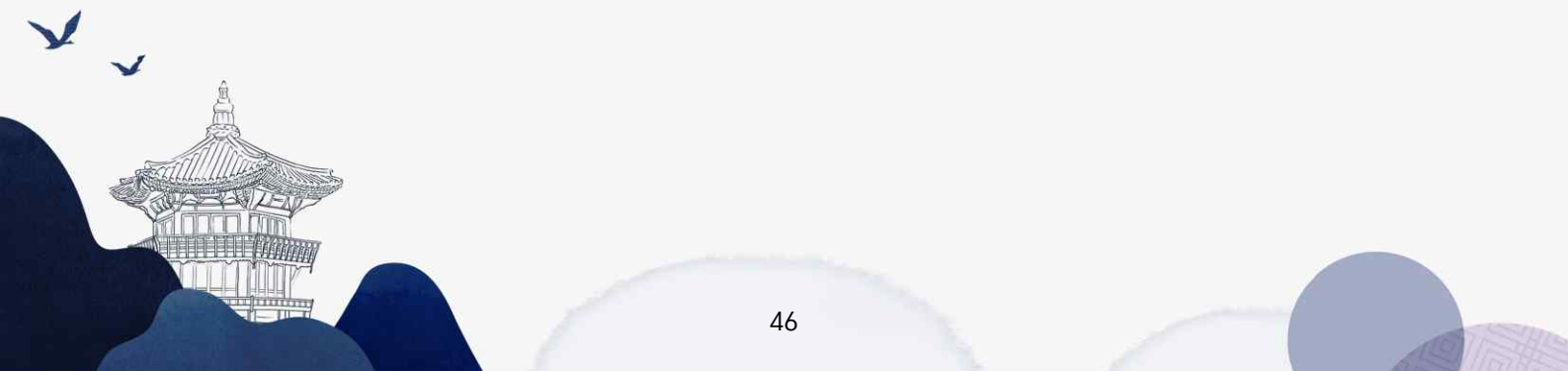
Among the ways of using Gyeongminpyeon during this period, some cases are worth noting. In 1693, Yi Giha, who served as the Governor of Jeju, added his opinion to Yi Huwon's version and distributed it. It was a much more aggressive attitude than just using it. The picture on the screen is a copy published by Yi Giha.



Bak Sechae valued this book more than anyone else and encouraged his acquaintances and students who started their career as local government officials to use it as educational materials. In particular, he made commoners read Gyeongminpyeon. On the other hand, he mentioned Yi I's Gyeokmongyogyedol (The Secret of Expelling Ignorance) as a basic education book for aristocrats.

Bak Sechae's opinion to make commoners read Gyeongminpyeon was what realized the intention of the original compiler Kim Jeong-guk, and in fact, during the 18th century, in King Yeongjo's reign, the government educated the residents of myeon and ri subdistricts with this book.

In the next lecture, we will look at the compilation of Song Inmyeong's and Yi Jeongsuk's versions in the first half of the 18th century,





3-5

**Compilation of Song Inmyeong's and Yi Jeongsuk's Versions
in the First Half of the 18th Centu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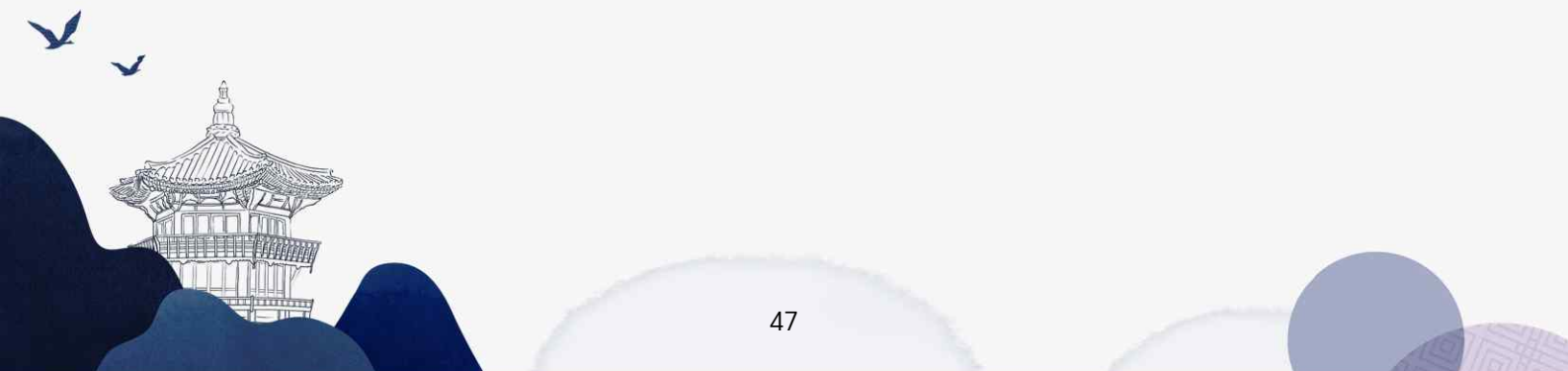
In the last lecture, we looked at the compilation of the Yi Huwon's version in the mid-17th century. In this lecture, we will look at the compilations of the first half of the 18th century by Song Inmyeong and Yi Jeongsuk.

In the history of publication and distribution of Gyeongminpyeon, the reign of King Yeongjo in the mid-18th century shows a special character. During this period, enlarged editions of Gyeongminpyeon appeared, and various forms of Gyeongminpyeon were used along with the existing versions.

The new revised versions were compiled and produced by Song Inmyeong (1689-1746), the Governor of Pyeongan-do, and Yi Jeongsuk (1674-1736), the magistrate of Sangju, Gyeongsang-do. The reason these two provincial officials made and distributed the enlarged versions was that the two regions of Pyongyang and Sangju were the main sites of the Musin Rebellion, or Yi Injwa's Rebellion in 1728.

The Musin Rebellion was caused by people who did not accept Yeongjo and Noron government, which endangered Joseon. The government came up with a lot of measures and implemented them to stabilize the public sentiment after the Rebellion, and local officials in Pyeongan-do and Sangju also made various efforts to calm the people in the region. The distribution of Gyeongminpyeon was a part of such effort.

In this respect, it can be said that the two publications of Song Inmyeong and Yi Jeongsuk were affected by the locality and the time. The image on the right is a part of Song Inmyeong's, and on the left is a part of Yi Jeongsuk's revised version.





Song Inmyeong (1689-1746), who served as the Governor of Pyeongan-do between 1729, the 5th year of King Yeongjo's reign and 1730, published the revised version in Pyongyang. Song Inmyeong expanded Yi Huwon's version by adding an article of warning eight things that he wrote himself, that is, the Eight Commandments. You can see the appeal to the king written by Yi Huwon petitioning for the publication of Gyeongminpyeon, the preface of Kim Jeong-guk, the text of 13 chapters, the admonitions of local officials of the Song Dynasty such as Zhen Dexiu, and Jeong Cheol's Hunmin-ga, added by Song Inmyeong's Eight Commandments.

Each clause of Eight Commandments is presented in gasa (prose-poem) with 4 and 4 syllable units written in Literary Chinese, followed by a Korean translation. The gasa in Literary Chinese do not have Korean sound scripts or gugyeol. It wasn't such a friendly format for people who don't know Classical Chinese to read and understand. All the clauses in the Eight Commandments have the fifth phrase beginning with "How sad, the people of the West!" Each clause contains a warning, but does not provide specific punishment regulations. It's another feature of the Eight Commandments.

Overall, it was written in a format that was not found in the Sanghuh or Yi Huwon's versions. For example, the third clause, which deals with men's and women's desires and adultery, is as follows:

The greed of men and women must be stopped by a big bank.
Marriage must be arranged by a matchmaker and adultery will be punished.
How sad, the people of the west! If you habitually take someone against her will.
How could you blame birds and animals? You shall punish yourself.

The themes mentioned in the Eight Commandments can be largely divided into lawsuit, marriage and family relations, farming,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ocal Governor and the people.



There are two clauses related to the lawsuit. It takes issue with the lawsuit between close relatives and the custom of liking it. This reflects the reality at that time where litigation took place between very close relatives, and lawsuits accounted for a large portion of daily life. The frequent occurrence of lawsuits among the locals indicates that many disputes and conflicts were to be settled.

Regarding family and relatives, he mention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inhuja (adopted heir), son-in-law, and son should be clarified so that property disputes would not rise. Inhuja refers to an adopted son for family succession. In Joseon, adopting an heir to succeed the family was widely spread as the agnatic principle developed. Family succession was intertwined with the succession of property, which caused a lot of conflict.

The clause, which refers to the desires of men and women, deals with issues related to marriage and the maintenance of marriage. If you consider the clause as saying that you should not rob other man's woman without getting married through normal matchmaking procedures, you can tell that this also happened frequently in this region.

What is interesting is that he mention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ocal people and the Governor. He says that since the Governor is like the parents, you should hide his faults if he had any, and should not file a petition even if there was an unfair incident. It must be a clause that reflects the reality where it is common to criticize and file a petition against the Governor. It can be said that this clause contains the core content that the powerful was most concerned about after the Musin Rebellion.

The last clause, which admonishes that we should not leave agriculture to engage in maleup but work hard in our main job, is similar to the part of Gyeongminpyeon, where agriculture is emphasized. Maleup means commerce and industry.



Song Inmyeong's Eight Commandments mainly deals with crimes and social conflicts that commonly occurred in Pyeongan-do.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his version is composed not only of various types of problems presented in the existing Yi Huwon's version, but also of added problems caused by spacial and temporal specificity unique to this region. Looking at it in this way, we can see that the scope of conflict captured in Song Inmyeong's version is much wider and more timely than in the previous version.

Yi Jeongsuk added his own gasa to Song Inmyeong's version and published it in 1730, when he was the Governor of Sangju. He must have obtained a copy printed in Pyongyang, which was far away from Sangju, and made his version a little later. What Yi Jeongsuk added has a similar format with Song Inmyeong's Eight Commandments, although there was a big difference in quantity.

Yi Jeongsuk compressed what he wanted to convey to the local residents of Sangju into a four-syllable poem with 104 lines and interpreted it in Korean. He took the form of gasa, because it can contain the theme he wanted to convey in quite a few lines but make it easy to read and understand.

The 104 lines of the 4 and 4 syllable units are largely divided into 4 paragraphs in terms of the themes. The first 16 lines describe the peace in which local people enjoyed life thanks to large scale edification in the area, and verses from 17 to 32 lament that the popular custom has lost its purity and ethics and morality have collapsed. Lines from 33 to 48 announce that moral education would be implemented, and lines from 49 to the last sing how to restore old custom and order. On the screen is the beginning of the gasa added by Yi Jeongsuk.

The political crisis brought about by the Musin Rebellion of 1728 served as an opportunity for Joseon's rulers to recognize the value of Gyeongminpyeon. Since then, some counties and prefectures moved to redistribute Yi Huwon's version, and enlarged versions with added contents emerged in Pyongyang and Sangju. Although each region had different printing blocks, books were printed with any printing blocks that could be obtained all over the country and used to educate local residents.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the movement to distribute Gyeongminpyeon nationwide appeared after 1745. In 1745, the 21st year of King Yeongjo's reign, the central government actively distributed Gyeongminpyeon and tried to use this book as educational material in every counties and sub-counties across the country. For some time since then, a new change took place that changed the history of Gyeongminpyeon. The government made a popular edition for distribution based on Yi Jeongsuk's revised version.

Song Inmyeong, the Second State Councilor, was the one who advocated the distribution of Gyeongminpyeon early on. He was concerned about the situation where quite a few high treason cases occurred outside of Hanyang that destroyed ethics, and suggested the distribution of this book as one of the countermeasures. It was a proposition to believe in the power of 'the teaching of letters.' Song Inmyeong suggested that every sub-counties in the country should designate a village teacher and entrust him with the education of Gyeongminpyeon.

After Song Inmyeong's suggestion in 1745, it seems that 8 provinces reprinted and distributed the popular edition to local residents as its original script was sent to them by the central government. We can see that Gyeongminpyeon was revised in the provincial office of Jeolla-do (Wanyeong version) and that of Chungcheong-do (Geumyeong version) in June 1745.

The Wanyeong and Geumyeong versions must have been made from one original script, while each publishers selected necessary contents and engraved them. The Wanyeong version contains both the text and appendices of Yi Huwon's version, as well as the admonitions added by Song Inmyeong and Yi Jeongsuk. In composition, it was the same as Yi Jeongsuk's, the last version. The Geumyeong version did not include the admonitions written by Song Inmyeong and Yi Jeongsuk.



Both books share the page composition, which consistently has 10 lines per page and 17 characters per line engraved, and the contents on each page are also the same. This is different from Yi Huwon's version which has 10 lines per page and 20 characters per line engraved. In the picture, the Wanyeong version is on the left, and the Geumyeon version is on the right.

The government's move to expand or distribute Gyeongminpyeon did not occur again after Yi Jeongsuk's version. It was the same in the 19th century. However, local power's interest in the book did not fade away during this period. Some local officials wanted to use Gyeongminpyeon in a diversified way of their own accord.

What Hong Jungseop, the magistrate of Suncheon, did in 1832, is remarkable. He was appointed to the magistrate of Suncheon in that year, and published Gyeongminpyeon and distributed it to all sub-counties of his jurisdiction. Interestingly, the book at this time consists only of Hong Jungseop's preface, Kim Jeong-guk's preface, and 13 main chapters. It is a simple content that excludes the articles criticizing the customs, Hunmin-ga, and admonitions of Song Inmyeong and Yi Jeongsuk, which were included in the previous versions.

Of all the existing versions of Gyeongminpyeon, its composition is the simplest and neatest. From the reader's point of view, the content of the text was easily accessible. Hong Jungseop is believed to have sent three copies of this book to each subcounties. At that time, there were 18 sub-counties in Suncheon-bu, and there is evidence that he sent three copies to two of them, Juam-myeon and Hwangjeon-myeon, respectively.

So far, we have summarized the use of the Gyeongminpyeon compiled and published by Kim Jeong-guk, the Governor of Hwanghae-do, from its compilation until the 19th century. The compilation and publication of Gyeongminpyeon is so special that I wonder if there's any other example of a book being transformed into various forms and utilized in Joseon.



If you look at the process of publishing various versions of the book, it was first published in Hwanghae-do in 1519, in Gyeongsang-do in 1579, and was distributed nationwide in 1658. Around 1730, Song Inmyeong's and Yi Jeongsuk's revised versions were made in Pyongyang and Sangju, and in 1745, the original script based on Yi Jeongsuk's revised version was distributed again throughout the country by the central government.

The reason why this book started in Hwanghae-do and spread across the country is that the basic premise of Gyeongminpyeon, which emphasizes education and enlightenment to inform the problem of crime in order to make local people live without committing crimes, worked.

The power of Joseon found the strength to maintain order through this book. It seems that local people were able to learn the least and simplest Confucian knowledge and ideology that they could practice in their daily lives through this book. You can say that the book played a huge role in changing the thoughts and customs of the local people in a Confucian way. Examining the publication and utilization of the book helps to understand one of the roots of the Confucian culture that strongly influences modern Korea.

In the next lecture, we will go on to explore our next theme, 'Reading Gyeongminpyeon' as a sequel to 'Understanding Gyeongminpyeon.' Thank you.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讲义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第3周

《警民编》的理解

3-1

金正国与《警民编》

各位同学，大家好。我是担任《韩国古典新读》之《警民编》课程主讲的郑豪熏。这节课是我们的第三节课，以“《警民编》的理解”为主题。

这本书是金正国任职黄海道监事时，于1519年创作的，旨在用于地方居民的教育上。地方官员以地方居民为对象编写的书，可以叫做警民编。虽然这本书的内容当时在朝鲜很罕见，只是金正国的个人著作，但由于也反应了这一时期掌握着权力的己卯士林的政治理念，因此很有可能脱离黄海道，在朝鲜全境广泛普及。

但是这本书随着金正国受到1519年发生的己卯士祸牵连而被罢职，一度地被遗忘。在这之后，过了大约十五年，随着金正国重新担任全罗道监事，又留下了被运用的痕迹，但是在他离世后再次被埋没。

有趣的是，在16世纪末以后，朝鲜的中央政府和地方官吏们对这本书多有关关注，多次进行增补和运用。以编纂者为中心来看，有16世纪末的许晔刊本、17世纪中叶以后的李厚源刊本、18世纪的宋寅明和李廷樞刊本。

警民编之所以被多次增补，是因为当权者判断这本书有不少的现实效用性。对比初期刊本，后世资料的面貌大有变化，内容也有所增加。这节课我们将学习朝鲜历史中警民编的运用过程和特性。

希望通过这节课，能够帮助大家理解朝鲜长期维持国家的力量从何而来。进而能够知道支配现代韩国人的意识的传统根据是什么。

金正国是16世纪前半期的学者、官员。本章将讲述他的生平，以及编纂《警民编》的动机。屏幕显示的资料是《性理大全书节要》。这是一本从规模庞大的性理大书中只摘选了重要内容来制作的书。1538年在罗州发行，很好地展现了金正国作为学者的面貌。他的坟墓现在在坡州。



金正国于1485年、成宗16年出生，1541年、中宗36年离世。本贯为义城。义城过去也叫做闻韶。金正国自己喜欢写“闻韶”。字为国弼，使用思斋·恩休作号。父亲是曾任礼宾寺参奉的金珪，母亲阳川许氏是郡守许芝的女儿。父母在金正国小时候就去世了。中宗时期的学者、官员金安国是他的哥哥。据说他曾经跟金宏弼学习过。

金正国在1509年、中宗四年在别试文科中状元及第，1514年赐暇读书，1518年成为黄海道监事。黄海道监事是从二品的大官，但担任此职位之前，金正国没有担任过外官职。历任吏曹正郎、司谏、承旨等要职，在朝廷担任过官职。在朝廷当官的官员叫做京官。

金正国通常被称作己卯士林。他的政治活动、他的政治思维与己卯士林有很多共通之处。为了更全面地理解这个人物，需要和中宗时期的己卯士林联系起来进行学习。

己卯士林是指赵光祖、金湜、朴薰等人在1519年己卯年发起的政变，虽然学界将这个事件称作己卯士祸，但它是指称政变发生时失去生命或者受到政治镇压的一群儒者、官员。他们大致在政变发生前的五六年间，积极提出新的法律与政策，努力想要改变朝鲜。

己卯士林的政治活动虽然具有很多面貌，但是充分地展示他们性格的史实是，他们在朝鲜社会广泛普及朱子学的基本理念，朱子学的基本礼制的活动。他们普及了《小学》《朱子增损吕氏乡约》《朱子家礼》等朱子学重视的文献，因为当时政治圈内有很多不赞成朱子学的势力，围绕这个出现了严重的政治纠纷，最终在1519年爆发了政变。

金正国也和他们的想法一致，步调一致。金安国也作为己卯士林的一员，共同参与了改变朝鲜的活动。1519年11月，己卯士祸爆发，连任黄海道监事的金正国被剥夺官职后，到高阳隐居。他在这里自称八馀居士，钻研学问，专心于著书立说和后辈教育。金正国在人生晚年重返官场，担任全罗道监事，这之后在担任庆尚道监事时因病去世。

下面来介绍一个充分展现了己卯士林活动的资料。这是1518年发行的《翻译小学》。虽然《小学》从高丽末期就引进了，但是读的人并不多。己卯士林想积极开展“小学普及运动”，在朝鲜广泛扩散朱子学。作为其中的一环制成的书就是《翻译小学》。



这本书最初以金属活字的乙亥字发行。担任了《小学》的标准学习参考书、译本的作用。并且也是朝鲜发起朱子学为基础的知识革命、文化变革的文献之一。右边的照片是《小学》的一个选段。先是原文，然后附上了韩文译文。原文用韩文标注汉字音，每句都用韩文标注口诀。

金正国“整理了13种与人类的道理有着深远的联系且百姓们在日常中容易犯的罪，使愚笨的百姓们始终熟知于心，远离恶，追求善，哪怕万分之一也要有所帮助”，怀着这种意识，制成了这本书，希望手下的守令们运用起来。《警民编》是一本书，作者站在监事的角度，探寻了地方民众如何不犯罪，维持社会秩序并生活的方法，并包含了自己的解决方案。

正如“警示百姓”的名字，《警民编》是国家机关即监事和地方居民的关系中形成的。从这个角度来说，这本书是国家权力主导编纂的百姓的启示书，也是地方官员在地方政治一线使用的政治教材。

金正国发行这本书的原因，可以从他回想黄海道监事时期留下的文字中确认。下面我只读一下其中的重要部分。

我在担任黄海监事的时候，沿岸住着一个叫李同的人。吃饭的时候和父亲吵着架，拿起碗打了父亲。

“父子关系如同天地、君臣之分。没有父亲，你的身体怎么能长出来呢？因此好好侍奉父母的话就是孝子，殴打咒骂父母的话就是逆子。你拿碗打了父亲。这如同以地犯天，以臣犯君，在法律上属于该死之罪。因此我要这样结束判决，将你处以死刑。”（……）不教导而加以刑罚的事是罔民。李同的行为就是没有教导所致。

住在沿岸的李同这样的人因殴打父亲而受到审判，这在当时按照法律该当死罪。金正国意识到，虽然他犯了该判处死刑的罪，但是儿子殴打父亲或犯下不孝的话，是因为不知道会被判处重罪才会做出这种事的。而且他认为，在没有事先教育人们不能犯罪的理由，以及犯法后受到的具体处罚等前提下，直接处罚他们是一种欺骗百姓的行为。

因此金正国将这些告诉了李同，李同听了金正国的话，意识到了父子关系的重要性和对父母犯罪是死罪并且求了罪。据推测，对于金正国执笔《警民编》，监事时期这样的经历起了很大作用。



《警民编》是一本为了预防犯罪的书。仅仅是犯了罪根据刑律来处罚的事情不是最好的办法，在犯罪之前应该先告知不可以这样做的理由，这种意识贯穿全书。从文中可以得知，本书强调了对于无知的问题意识以及对无知启蒙的重要性的观念。

作为黄海道的地方长官重新任职，教导地方居民，使他们意识到错误，想要通过此举让他们避免作恶的金正国，旨在排除刑罚的强制性和暴力性的儒家思想，简言之就是忠于朱子学的结果。朱子学认为，通过学习实现个人知识和道德的改变很重要。

金正国是将14~15世纪持续扩张的儒教文化，朱子学的理念在自己的立场上适当消化，在担任地方长官期间将其浓缩，编写为《警民编》。

屏幕所显示的画是19世纪初庆尚道昆阳的邑城。可以看到牢狱。这幅画虽然比起15~16世纪，更能反映后世的情况，但是我认为这将有助于推测制成警民编那时的情况。

权力对于犯罪者执行严格的拘留处罚，严重者会夺走他的性命。金正国想要通过编纂《警民编》来提出能够避免地方居民犯罪而遭到处罚的方法。在下节课我们将学习《警民编》的构成和特性。



3-2 《警民编》的构成和特性

上节课我们探讨了金正国与《警民编》。这节课我们将探讨《警民编》的构成和特性。

《警民编》目前没有初刊本流传下来。金正国担任黄海道监事时所发行的，人们一看册子就知道是《警民编》的实物至今还不得而知。因此对这本书的理解从出发就遇到了难关。书的构成，涉及的内容只能通过后世发行的刊本来推测。

至今为止，所知的最早时期的刊本是建国大学常虚纪念图书馆所藏的资料，接下来将称作常虚本。此刊本虽然不是金正国《警民编》的初刊本，但这算得上是和初刊本在时间上离得并不远的初期刊本。通过这些大概可以推测初刊本的样子。

《警民编》的正文总共由13个篇章组成。第一章是从父母开始，夫妻、兄弟姐妹、族亲、邻里、斗殴、勤业、储积、诈伪、犯奸、盗贼、杀人、奴主，按照这个顺序安排的。

13个主题是运用《大明律直解》、《经国大典》的刑律选定的。这些主题涵盖了地方居民们在日常中会犯的主要罪行和越轨行为。仔细看13章顺序的话可以分为几个类型。从第1章到第5章，以主体为中心构成主题，涉及父母、家人与血亲。邻里虽然不是家族血亲，但是家族之外存在的共同体。

第6章斗殴到第12章杀人为止是以犯罪或者越轨为中心制定的主题。是日常生活中会犯的犯罪行为。只是，强调勤奋地从事生计的勤业、提倡不要浪费，边积蓄边生活的储积虽然与犯罪无关，但在这些章节中懒惰与浪费被视为犯罪行为。

最后的奴主章有些特别。这章涉及在奴婢和主人的关系中发生的犯罪。与主体有关联的话，应该会安排在前半部分，但他却没有这么做。即便如此奴婢也不是犯罪行为。但是《经国大典》中与奴婢关联的事实在刑典里有所记载。能够确认将其存在本身与犯罪捆绑理解的独特观念，但不知道《警民编》的编写有没有也受到这样的因素影响。

各篇章先按照主题说明了不能犯罪的理由，接着记载了不同罪行的刑罚规定。也就是说，每章都记载了两种不同性质的内容，在谈到刑罚规定时，都表示是“法”。在13个主题中这个形式的构成是统一的反复。



不能犯罪的理由大体上以儒教的道德和常识性事理来说明，刑罚规定使用《大明律》、《经国大典》里有的刑律。因为《大明律》被用作朝鲜刑律的基本图书，使用警民编中提到的刑律大部分都来自《大明律》。处罚主要以《大明律》的5刑来进行。

这是《大明律直解》。1395年太祖4年，政府用吏读将内容直解，为了刑罚工作人员易于使用这本书而出版，随着《经国大典》完成，注明了“刑律使用了《大明律》”的原则，从法律上明确规定了《大明律》的运用根据。在这个过程中，虽然朝鲜政府也制定且运用了《大明律》中没有的朝鲜固有刑律，但《大明律》仍是中心。

画面中的《大明律直解》是1686年发行的，现在是奎章阁韩国学研究院图书。从第一章里印有“内阁”、“奎章之宝”藏书印来看，可以得知是朝鲜后期奎章阁收藏的书。

《大明律直解》最先用韩文标示了原文，然后以小字运用吏读注解。让我们放大来看一下注解的内容。可以看到因为凌迟处死的刑罚在朝鲜用车裂刑来替代实施，所以“凌迟处死”解读为“车裂处死”。这是《大明律》里规定的五种刑罚。从笞刑到死刑分为五个等级，各种刑罚又根据轻重而刑量不同。死刑有绞刑、斩刑两个种类，斩刑是更重的刑罚。虽然凌迟处死不在五刑之中，但实际在規定中适用。通过图画展示的画面是执行斩刑的场面。

以第一父母章为例，前面所说明的内容如下。引用文的空格是根据内容随意尝试的，圆圈标记是标示缺落不可见的字。红色的字是口诀，正文只用了韩文记述。可以说原文不用韩语翻译，汉文阅读能力差的人读起来非常困难。这个画面中显示了帮助理解的译文。

句子中间设置了借字口诀帮助读者理解。针对“五”、“飞”、“为时古”、“为时尼”、“是尼罗”、“隐”、“为面”等词语做了借字标记，被解读为“o”、“na”、“ha xi gu”、“ha xi ni”、“yi ni la”、“en”、“ha muym”等。可以看到运用汉字音与声音标出了韩语口诀。

对于必须对父母尽孝的理由解释为，“父亲像天空，母亲像大地。辛辛苦苦生下我，辛勤地喂我喝奶，吃力地把我拉扯大，父母的恩德像天空一样无穷无尽。”

并记载道，如果对父母和祖父母不孝，“谋杀祖父母和父母的话凌迟处死，打祖父母和父母的话，处以斩首的斩刑，责骂祖父母和父母的话，处以吊死的绞刑。不做要求做的事情，不努力奉养的话，打100杖。”根据罪行的性质，分为凌迟处死、斩刑、绞刑、杖刑等。



《警民编》第一章中，对父母、祖父母犯的罪总共列举出五种。谋杀、殴打、辱骂、不尊重、控告等。可以看出提出了每种罪行相应的处罚规定，从凌迟处死到100杖，分为许多等级。

《大明律直解》中，不孝规定为十恶之一，进行严格的处罚，因此刑罚比较严酷。《警民编》第一章中，涉及的内容有《大明律直解》刑律篇的五项，在《警民编》中，简写了其中的核心内容。控诉的情况，仅仅写了父母，处罚内容也省略了复杂的，只写了最重要的部分。

前近代刑罚的特点是，以暴力、压迫和强制力为基础，控制和引导个人行为，以《大明律》为根据的朝鲜刑罚运用也是如此。严厉的处罚对打击犯罪和维持秩序有不小的帮助。但这并不是全部。只通过处罚很难期待犯罪人的变化，也很难降低犯罪的发生。

《警民编》强调对犯罪和社会越轨行为依据法律进行处罚并不是万能的，应该使地方居民们意识到犯罪行为的根本问题，来引导他们避免犯罪。警民编的序言是对此的明确声明。

制定刑罚和法都是出于古君爱民之仁心，不先用道德来引导他们，而是用法来讨论拘禁与否，这不是更接近于“给百姓撒网”吗？

制书的同时，一定要推却根本，提出道理，是因为希望百姓们用心去感受，将其振兴，引用法律来参证是因为希望百姓们怀着畏惧的心，懂得避开作恶。用简单的话语，普通的句子，是因为想让百姓们不学习也可以轻松理解。

在防止犯罪，维护社会秩序上，比起刑罚，金正国认为必须要以成员们的知性自觉和道德性的兴起为基础，这种想法在朝鲜时期的地方政治官场上最初阐明。《警民编》具有的实际意义可以在这里找到。

警民编的方法其独特之处，与15世纪朝鲜实行的教化和刑罚策略相比很好地凸显出来。朝鲜在建国之后，作为维护社会秩序、使百姓们无法越轨的手段，关注教化和刑罚，实行与此相关的政策。

在与教化有关上，强调了三纲的道德性。认为君主与臣子、父母与子女、丈夫与妻子这三种人际关系最重要，培养并实践符合各关系的忠、孝、烈的道德性。为此，政府编纂并普及了《三纲行实图》，表彰实行三纲的模范们。



虽然前面也有列举，但是刑罚是以《大明律》为基本刑典，提供了惩治犯罪的依据。包括不孝在内，对盗贼、争斗、诈骗、谩骂等广范围的犯罪行为，按照5刑的规定严厉惩处。但是在这个时期，未能实施预防百姓犯罪的政策，也没有包含这种想法的书。没有像《警民编》一样，努力从教化层面接近犯罪行为所具有的问题，并告知百姓而启蒙他们。

因此金正国的《警民编》是一部具有创新性想法的书籍。金正国通过《警民编》提出了作为社会和政治运营的基础，社会成员们的道德自觉应优先于刑罚，同既有的观念、既有的政治文化割裂，提出了新的标准。可以说这本书具有文明史转换的意义。《大明律直解》在前面看过了，所以来简单说一下《三纲行实图》。这是《三纲行实图》初刊本的样子。1434年，奉世宗之命制成。从历史的角度，用文字对忠、孝、烈的模范事例进行整理后，通过用图画使用更简单明了的说明方式制成了此书。

这本书的构成很简单，但每个史实都配有一页图画、一页史实和诗。通过图画展示历史事例，因此对理解有很大帮助。但是这时的三纲行实图的原文只用汉文编写，不会读汉文的人理解起来并不容易。

成宗时期用训民正音翻译了原文写上去。这是题目“龙逢谏死”的事例。与前面汉文本上相同题目的事例比较，可以看出两本书有明显的差异。在读者的立场上，比起只有汉文的书，读起来理解会稍微容易一些。政府为了得到《三纲行实图》的效果，也实施政策，让识字的人召集不识字的百姓们，为他们解读书的内容。

这张照片是国家为了表彰壬辰倭乱时期战死的郑湛的忠贞所制作的旌闾。在庆尚北道的永川。国家通过评选和表彰忠臣、孝子、烈女，期待在当地有越来越多的人去跟随，受到表彰的人们的家人和后代都对此感到光荣。

下节课我们将学习16世纪末许晔刊本的相关内容。



3-3

16世纪末许晔刊本的编纂

上节课我们学习了《警民编》的构成和特性。这节课我们来学习16世纪末许晔简本编纂的相关内容。

金正国的《警民编》在1579年宣祖12年，随着担任庆尚道观察使的许晔再次发行普及，重新获得生命力。许晔的重刊本与先前发行的常虚本比较，在很多方面出现了变化。

许晔的《警民编》发行成为这本书在朝鲜广泛传播的契机。当时朝鲜的8道中，从道的形势、道的规模来看，庆尚道位于首位，因此许晔的《警民编》普及虽然局限于庆尚道这一个地区，其影响范围扩大到先前时期不能与之相比的程度。

在庆尚道地区《警民编》广泛普及，这一点从当时印刷的数量也能得以确认。后来撰写许晔的神道碑文的卢守慎证实，许晔发行了数千本。1585年宣祖18年，许筠续写的《攷事撮要》中记录道，庆尚道地区《警民编》书版的持有地有沙川、晋州、上州。这些地区的书版被认为与许晔的重刊本有关系。

许晔的重刊本十分珍贵。现在日本筑波大学的收藏本最广为人知。画面中是标志与君上章的第一面。通过印有“安养院藏”的藏书印来看，这本书被认为是壬辰倭乱时流入日本，保管在幕府图书室里的。

能看到许晔的重刊本与初期刊本常虚本比较时，在许多方面都有变化。书的开头写了许晔的重刊序言和金正国的序言。通过写下这些文字，明确提出了金正国写这本书的理由，最初制作这本书的意图和方向，明确突出了许晔作为庆尚道监事重刊这本书的事由。发行这本书的时候，也明确指出为“1519年冬天(正德己卯冬十月) ”。

金正国初具雏形的“教化和刑罚”的命题，通过金正国的序言向读者们明确揭示，这是重刊本所具有的最高美德。虽然许晔发行重刊本，没有明确展示是否参照了金正国的初刊本，但是对在推测《警民编》初期的面貌上，这份材料有所帮助。

更为关键的是添加了新的内容。许晔单独列出了君上这一项，并将这个放在正文最开头。“君上”是称呼君主的用语。新加入了金正国的初期刊本中没有的内容，许晔的重刊本在原有的13项上又增添了1项，共14项。若将初期刊本常虚本与许晔刊本进行比较，如屏幕的表格所示。



可以看出许晔刊本与之前出的刊本比较存在很大的差异。首先，通过增添的君上章，强调了百姓要对君主和国家尽忠，忠实地完成国家赋予的职务。许晔可能认为，金正国刊本中缺少君主、国家和百姓的关系这一点，存在很多的问题，必须要补充完整。

这是许晔撰写的君上章的全文。这可以分成两个段落来学习其意义。第一个段落里说道“君主是百姓的主任，国家是百姓依靠的地方”之后，强调了百姓们过好生活是国家施舍养育的恩惠。将百姓和君主的关系看作父亲与儿子的关系，这种认知很有趣。第二个段落里说道，百姓要忠实地交纳给百姓的职务即贡赋和徭役，国家有难时，不能回避，而应该帮助。

许晔的刊本中标记也有了新的变化。对于原文，与常虚本相比较，整体上还是遵循了常虚本。口诀的借字形式继承了常虚本。在这一方面没有新的变化。但是用汉文撰写的原文翻译成韩文并加以补充，这一点是之前没有的变革。因为同时使用汉文和韩文标记，所以读者们很容易接收这本书。比起只用汉文撰写的刊本，大大降低了语言障碍。在理解书的内容上来看韩文具有的作用，许晔重刊本所具有的意义并不小。

下面来看一下第二章父母章的原文和译文的一部分。字幕标出的原文的红色部分是借字口诀。译文变为了现代标记法。

父亲就像天空，母亲就像大地。辛苦地生下我，辛勤地喂我喝奶，吃力地把我拉扯大，父母的恩德像天空一样无穷无尽。爷爷和奶奶生下了我的爸爸妈妈，所以对我而言，他们与父母无异。

将父母翻译成“爸爸妈妈”，祖父母翻译成“爷爷和奶奶”，这一点很引人注目。若想阅读后理解这里所出现的句子，基础学习需要很扎实才行。韩文译文在旁边的话，我认为对熟悉文章会有很大的帮助。到此给大家看了父母章前面的部分。能感受到作者倾注了很多精力去刻画。

下节课我们将学习17世纪中叶，李厚源刊本编纂的相关内容。



3-4 17世纪中叶, 李厚源刊本的编纂

在上节课, 我们学习了16世纪末许睥刊本编纂的相关内容。这节课我们将学习17世纪中叶, 李厚源刊本编纂的相关内容。

17世纪中叶是《警民编》的社会性生命力划时代扩散的时期。从孝宗末期到显宗初期, 西人阵营的有力政治人李厚源得到孝宗的允许, 得以编纂这本书。但实际上发行因许多事由而推迟, 因此在孝宗死后, 显宗初年才得以成为现实。

李厚源在发行这本书之后, 成为全国方伯和守令参考的重要文献。李厚源在准备这本书的发行时, 底本的资料是从海西地区艰难求得的手抄本。据说李厚源最初决定发行警民编后, 因找不到书, 拖了很久, 直到找到了复印本, 将其翻译成韩文, 才得以完成编纂。李厚源没能直接看到《警民编》的初刊本, 很有可能也没有参照常虚本或许睥刊本。

考虑到这一点, 可以说李厚源的刊本, 与此前的许多刊本取得的成就或变化无关, 是以李厚源的方式制成的。也就是说, 如果参考了有韩文译文的许睥刊本, 制作起来可能会更容易, 但可以看出李厚源并没有这样做。屏幕所显示的是李厚源刊本的标记和目录。

李厚源刊本的篇章构成和常虚本或许睥刊本并不相同。这个刊本总共由13章构成。这与常虚本相比没有变化。但是缺少了许睥刊本中增添的君上章。相反, 奴主章被放在了族亲章和邻里章之间。这可能是李厚源想要把握在家庭秩序中“奴婢和主人”的关系而进行的结构重组。

李厚源通过附录, 记载了4种宋代地方官员们的谕俗文, 还记载了16世纪末担任江原道监事的郑澈写的训民歌。宋代的地方官员们都是继承了朱子学问的学者们。李厚源刊本的分量增加, 西人的政治特质突出, 并且强化了朱子学的氛围。常虚本、许睥刊本、李厚源刊本三者之间的差异如表格所示。

在李厚源刊本中需要关注的资料是《训民歌》。《训民歌》是郑澈担任江原监事时写的作品, 总共由16个短歌组成。原本是18首, 有2首没有歌词只记载了题目。

《训民歌》每个短歌都突出主题, 以歌词的形式简略地解释了其意义。16个歌词的题目是“父母【父义母慈】”、“兄弟【兄友弟恭】”、“君臣【君臣】”、“子女【子孝】”、“夫妇【夫妇有恩】”、“勤勉务农【无惰农桑】”、“禁止盗窃【无作盗贼】”、“禁止赌博和诉讼【无学赌博, 无好争讼】”等。《训民歌》中涉及的主题除去“君臣【君臣】”、“按年龄的秩序【长幼有序】”、“朋友间的信赖【朋友有信】”等的话, 大体上都在《警民编》有所记载。



《训民歌》可以说是以《警民编》的思想为基础，同时补充了《警民编》里不足的地方。

李厚源之所以将《训民歌》补充为《警民编》附录，就是因为这个歌词便于接近普通百姓，《警民编》的原有体系里缺少的君臣以下的三个项目可以通过这个歌词补充，这一点也被认为是具有意义的评价。

因为李厚源刊本在国家发行，所以比起这之前的刊本，留下了制作干净利落的印象。可以得知其翻译水平也非常高。

李厚源刊本的译文中看到的变化情况可以整理如下。第一，用韩文标记了口诀。常虚本和许晔刊本中使用的借字口诀在李厚源刊本中改为韩文口诀。

韩文口诀在16世纪的韩文译本中也已经出现，因此不只是李厚源刊本的创意。纪谚解的口诀标记出现了借字口诀和韩文口诀两种方式，中宗时期的《吕氏乡约谚解》，宣祖时期的许晔刊本用借字口诀标记，《翻译小学》、《小学谚解》等用韩文口诀标记。

第二，在译文中如果有需要会写出汉字，每个汉字都并记该字的韩文音。原文里虽然没有加上汉字音，但译文中原封不动地显出汉字词并进行注音。换句话说，“祖父母”如屏幕所示，“祖父母”的汉字词间标记了韩文。因此将汉字词翻译成韩文的情况大体上都消失了。这一点与许晔重刊本的方式形成了很大的对比。许晔重刊本将“祖父母”用纯韩文翻译成“爷爷和奶奶”。

李厚源刊本发行之后，在全国得到普及运用。特别是在发生了暴力犯罪或在儒教文化不发达的地区，热烈开展了用这本书启蒙地区居民的活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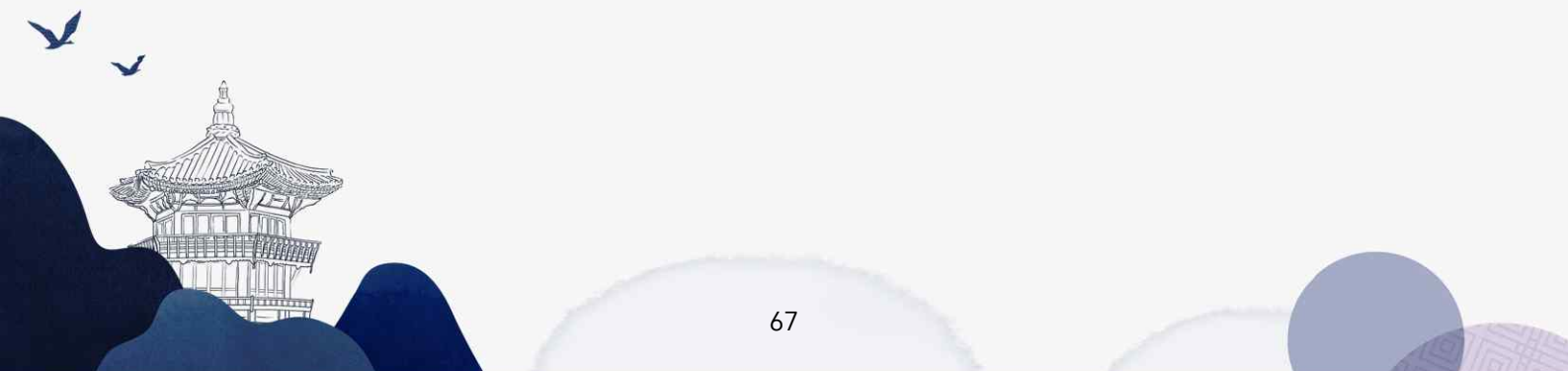
这个时期运用警民编的情况中，可以列出以下值得注意的事情。1693年担任济州牧使的李基夏在李厚源刊本上添上自己的意见，进行了刻板 and 普及。比起只是使用李厚源刊本，可以说这是更积极的态度。画面中是李基夏发行的刊本的照片。

朴世采比谁都要重视这本书的价值，还劝说作为地方官员出去的熟人或弟子将这个作为教育资料。特别是，他还以普通百姓为对象让其阅读警民编。与此相反，朴世采提出李珣的击蒙要诀作为士族的初级教育书。



朴世采让普通百姓阅读警民编的意见，好像将原编纂人金正国的意图具体化了，但实际上，18世纪英祖时期在政府层面也曾用这本书教育面里的居民。

在下节课，我们将探讨18世纪宋寅明、李廷樞刊本的编纂。





3-5

18世纪前半期, 宋寅明、李廷樞刊本的编纂

上节课我们学习了17世纪中叶, 李厚源刊本的编纂。这节课我们将探讨18世纪前半期, 宋寅明、李廷樞刊本的编纂。

《警民编》的发行和流通历史上, 18世纪中期的英祖治世展现了较为特别的面貌。因为这个时期警民编的增补本出现, 和已有的刊本一起运用多种形态的警民编。

增添了新内容的增补本是平安道监事宋寅明和庆尚道上州牧使李廷樞两个人编纂制作的。这两个地方官员制作和普及增补本的理由, 是因为平壤和上州两个地区是1728年戊申乱即李麟佐乱的主要地区。

戊申乱是不承认英祖和老论 (朝鲜时期四色党派之一) 政府的人们发起叛乱让朝鲜陷入危机。政府在戊申乱之后为了安抚民心, 设立并实施了很多对策, 平安道和上州的地方官员们也为了这个地区的民心安定做了多方面的努力。警民编的普及作为这种作业的一环进行。

从这方面来看, 可以说宋寅明和李廷樞的两个刊本具有加入了两个地区的地域性与时代性的特征。屏幕右图是宋寅明的增补本, 左图是李廷樞增补本的一部分。

宋寅明刊本是从1729年英祖5年到1730年之间, 担任平安道监事的宋寅明在平壤发行的。宋寅明在已有的李厚源刊本上, 添加了自己亲自写的8条警戒文, 即8系, 准备了增补本。可以看到请愿发行《警民编》的李厚源的上疏文, 金正国的序言, 13个篇章的正文, 真德秀等宋代地方官员的劝诱文, 郑澈的训民歌上加入了宋寅明8系的构成。

8系是每组先以4-4条汉文歌词的形式出示原文, 接着附上韩文译文。汉文歌词上没有并记韩文音, 也没有加上口诀。可以说这是对于不懂汉文的人阅读理解起来并不太友好的形式。在8系中, 第五句采用了重复“哀哉, 西边百姓! 【唉! 西之民】”这句话的形式。每条都含有警戒的内容, 但是没有提出具体的处罚规定。这是8系的另一个特征。

从整体来看, 8系是以常虚本或李厚源刊本中找不到的形式编写成的。举个例子, 关于男女的欲望和奸淫的第三条如下。



一定要防好男人和女人的贪念。婚姻必须要作媒，如果犯了奸淫就要受到惩罚。哀哉，西边百姓，要强取豪夺。何以责鸟兽 对于惩罚，应该自己一力承担。

8系言及的内容大致看一下，可以分为诉讼、婚姻与家族关系、农事、官长和百姓的关系等。

与诉讼相关的有两项。至亲间的诉讼，好讼的风俗被当做问题。从像至亲一样关系十分密切的亲生骨肉关系中生出诉讼，也可以说反映了日常生活中诉讼占了很大的比重。地方居民们的世界中经常发生诉讼的现象，指出了有很多需要调整的纷争与矛盾。

关于家人，亲人，明确了人后者，女婿和儿子的关系，提出不要引起财产纷争。人后者是指为了继承家计收的养子。在朝鲜随着宗法扩散，作为继承家计的方法，养子的惯例被广泛扩大。家计的继承与财产的继承相吻合，经济利害关系交织在一起，在这里很容易出现纷争。

言及男女欲望的项目中，涉及了婚姻和维护婚姻相关的问题。通过没有经过正常的做媒这一环节，不能强抢别人的女子的内容来看，也可以知道这种事情在这个地区经常发生。

将地方官员和官长的关系作为议题这一点很有趣。提出了官长如同父母，即使官长有过错也要隐瞒，有冤屈也不能控诉。这一项算是反映了批判官长，控诉之事是时常发生的事实。这个目录含有在戊申乱之后，权力最担心的核心内容。

强调不要离开农业从事末业，致力于本业的最后一项，与《警民编》里提出的重视农活的内容相似。末业指工商业。

宋寅明提出的8系，主要涉及平安道地区经常出现的罪行、社会性矛盾。寅明刊本是和已有的李厚源刊本中能看到的许多问题一起，加上这个地区固有的地域性及时代性构成的。从这一点来看，宋寅明刊本中所捕捉到的矛盾范围比之前的刊本更广，更符合时宜性。

李廷樞刊本是1730年上州牧使李廷樞在宋寅明刊本上添加了自己写的歌词后发行的。比起宋寅明刊本，可以说是在稍晚的时候，求得远在平壤发行的书然后制作而成。李廷樞增补添加的内容，与宋寅明增补的8系相比，虽然分量上有很大差异，但形式相似。



李廷樞将想要传达给上州地区居民们的内容浓缩成104节四言诗制作，并把它用韩文解释。想要传达的主题在包含在不少的分量中，采取了易于阅读理解的歌辞形式。

4.4句的104段从涉及的内容来看可以分为四个段落。16段里讲了这个地区大力实行教化，地区居民们享受生活的平和状态，17段以下32段为止提出了百姓的风俗失去了淳朴，伦理和纲常崩塌的事实。从33段到48段表明了实施道德教育，接着从49段到最后一段罗列了恢复旧风俗和秩序的方案。画面是李廷樞增补的歌词开始的第一个开头。

1728年的戊申变乱引发的政治危机是使朝鲜的执政者重新回顾《警民编》价值的契机。一部分郡县出现了想要再次普及李厚源刊本的行动，李厚源刊本又添加了新的内容，增补的书出现在平壤和上州。虽然各地区收藏的书版的特性不同，但是在全国各地都用能够拿到的书版来印书，用于地方居民的教育。

从中央政府角度来看，想在全国普及警民编的行动是出现在1745年以后。1745年英祖21年，中央政府积极普及《警民编》，想要在全国的郡县和面里将这本书用作教育资料。此后一段时间，《警民编》的运用在历史上出现了划时代的新变化。政府的普及本将李廷樞的增补本作为底本准备。

带头主张需要普及《警民编》的人物是左议政宋寅明。宋寅明担心在京外破坏伦理的狱事经常发生，将这本书的普及作为对策的一环提出。他相信这是“利用文字教学【文字之教】”的力量的提案。宋寅明将警民编作为教育的方法，在全国的面里定了师长，即训长，将教育托付给他们。

1745年宋寅明提出建议后，在8道再次进行印刷从中央下发的底本，向地方居民普及。现在1745年6月全罗道的监营【即完营本】和忠清道的监营【即锦营本】里，可以确认改刊了警民编。

完营本和锦营本是用一个底本制作的书，可以看出从这个底本里选取需要的内容进行刻板。完营本和李厚源刊本的原文、附录一起，将宋寅明和李廷樞增补的警戒文全部收录。从形态上看，与最后的刊本李廷樞刊本相同。锦营本中没有宋寅明和李廷樞写成的警戒文。

两本书的共同部分都是一面刻有10行17字，每面的内容都是一样的。这是与刻有10行20字的李厚源刊本形成比较。左边的照片是完营本，右边的照片是锦营本。



在政府的角度上，想要增补或普及警民编的行动在李廷樞刊本之后没有出现。在19世纪也是一样。但在这个时期地方权力对警民编的关心并没有消失。一些地方官员们想根据自己的意志运用形态多元化的警民编。

1832年顺天府使洪重燮的行动值得一提。这一年被任命为顺天府使的洪重燮发行警民编，在管辖区各面普及。有趣的是当时的刊本是洪重燮的序言，金正国的序言，仅由13章的正文构成的。前面时期的刊本上所登载的谕俗文，训民歌，宋寅明李廷樞的警戒文都是被排除在外的内容。

从现存的警民编来看，可以说是构成最简单利落的。从读者的角度来看，正文内容是不难、好理解的形态。据估计，每个面的所在地都收到了洪重燮发送的三本册子。当时顺天府有18个面，这其中住岩面、黄田面可以看到两面各三部的痕迹。

以上整理了16世纪初，黄海道监事金正国编纂，发行的警民编到19世纪被运用的情况。我甚至觉得在朝鲜，一本书形态多样被运用的事例，除了警民编应该找不到了，警民编的编纂、发行、样态都展现了独特的面貌。

从首次发行之后，许多刊本出现的过程来看，自1519年黄海道初次发行后，经过1579年庆尚道的发行，最终1658年在全国普及。1730年时，在平壤和上州宋寅明和李廷樞制作了增补本，之后在1745年将李廷樞的增补本当做底本，实行了这本书再次在全国普及的政策。

从黄海道地区出发扩散到全国，我认为这本书被广泛使用的理由是基于警民编“为了能让地方居民们不犯罪，应当通过教育和启蒙，告知他们犯罪的问题”的基本方针发挥了效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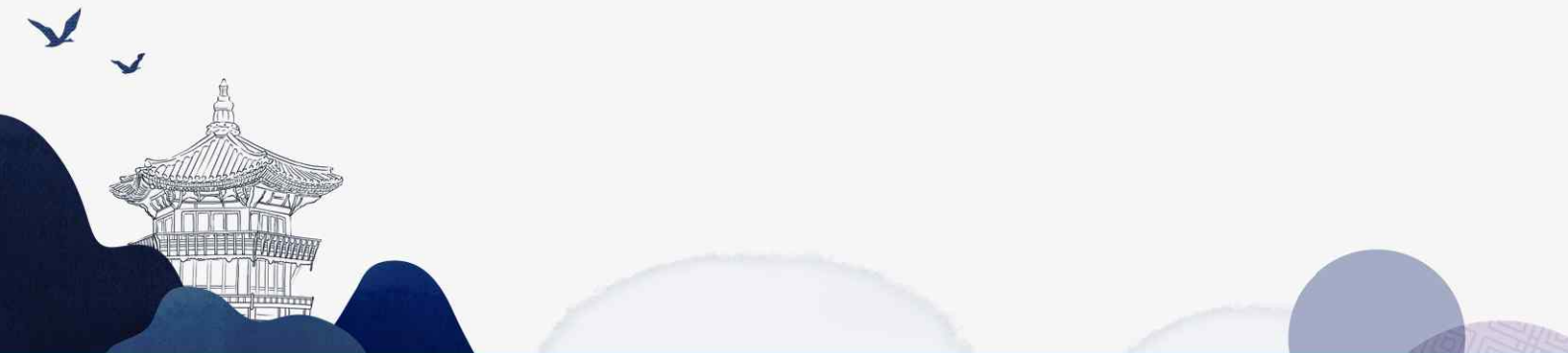
朝鲜的权力通过这本书，找到了维护秩序的力量。地方居民通过这本书，可以简单学习在日常生活中能实践的儒教知识和理念。可以说警民编在以儒教的方式改变地方居民们的思想和习俗上起了很大作用。若要理解对现代也有强烈影响的儒教文化其中的一个根源，整理警民编的发行和运用也对其有很大的帮助。

下节课作为“警民编的理解”的后续篇，将会讲探讨以“解读警民编”为主题的课程。谢谢大家。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퀴즈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퀴즈

01 다음은 《경민편》의 저자 김정국에 관한 설명이다. 바르지 않은 것은?

5분

- ① 《성리대전서절요》를 편찬하여 나주에서 간행했다.
- ② 조광조 등 기묘사림의 일원으로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파직되었다.
- ③ 젊은 시절 황해도에서 공부하는 동안 《경민편》을 구상했다.
- ④ 김굉필(金宏弼)에게서 배우고 형님 김안국의 영향도 많이 받았다.

정답 ③

해설 《경민편》은 김정국이 황해도 감사로 지내는 동안 편찬, 간행했습니다. 젊은 시절 황해도에서 공부하며 이 책을 구상했다는 설명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김정국은 김굉필(金宏弼)에게서 배우고 형님 김안국의 영향도 많이 받은 인물로, 기묘사림들과 함께 정치 개혁에 앞장섰다가 1519년(중종 14)에 일어난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파직되었습니다. 중종 말년, 전라도 감사로 복직되어 《성리대전서》의 주요 내용을 간추린 《성리대전서절요》를 나주에서 간행했습니다.

02 다음 《경민편》에 관한 설명 중 바르지 않은 것은?

5분

- ① 16세기 후반, 경상도 감사 허엽은 《경민편》을 중간(重刊)하여 경상도에 보급했다.
- ② 17세기 중엽, 이후원이 편찬 간행한 《경민편》에는 송대 지방관들의 유속문(諭俗文)과 정철(鄭澈)이 지은 훈민가(訓民歌)를 부록으로 실었다.
- ③ 18세기 전반, 평양과 상주에서도 《경민편》의 증보본이 간행되었다.
- ④ 《경민편》에는 처음 간행할 때부터 한글 대역문이 실렸다.

정답 ④

해설 《경민편》은 김정국이 간행한 이래 크게 3번의 변화를 겪습니다. 16세기 후반의 허엽 간본, 17세기 중엽의 이후원 간본, 18세기 전반 평양의 송인명·상주의 이정숙 간본이 그것입니다. 각 간본마다 특징이 있는데, 허엽 간본에서는 한글 대역문(對譯文)이 처음 나타나고 이후원 간본에서는 송대 지방관들의 유속문(諭俗文)과 정철(鄭澈)이 지은 훈민가(訓民歌)가 부록으로 실렸습니다. 18세기 전반에 나온 송인명과 이정숙 간본에는 평양과 상주의 풍속을 담은 글이 부록으로 첨부됩니다. 《경민편》의 초기 간본에는 한문만 실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간행 할 때부터 한글 대역문이 실렸다는 ④번은 바르지 않습니다.



03 다음은 《경민편》의 구성에 관한 설명이다. 바르지 않은 것은?

5분

- ① 초기 간본은 1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부처 등 가족을 다룬 내용이 첫 머리에 나온다.
- ② 허엽이 편찬·간행한 16세기 후반의 《경민편》에는 ‘군상(君上)’편이 새로 실렸다.
- ③ 《경민편》의 각 장에서는 먼저 범죄 사실에 대한 형량을 제시하고, 이어 범죄를 저지르면 안되는 이유를 거론했다.
- ④ 《경민편》에 실린 형벌은 《대명률직해》와 《경국대전》의 규정을 활용했다.

정답 ③

해설 처음 《경민편》이 간행될 때는 본문을 13장으로 구성했었습니다. 16세기 후반 허엽은 여기에 ‘군상(君上)’장을 더하여 14장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17세기 이후 간본은 모두 13장으로 원상 복구됩니다. 《경민편》은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는데 첫 4개의 장은 부모, 부처, 형제·자매, 족친으로 가족 혈연과 연관이 있습니다. 《경민편》은 각 장마다 장별 주제의 의미를 먼저 거론하고 이어 이와 연관되는 범죄와 형량을 제시했습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형벌은 《대명률직해》와 《경국대전》의 규정을 활용했습니다. ③번 항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04 다음은 《대명률직해》에 관한 설명이다. 사실과 다른 내용은?

5분

- ① 《대명률직해》는 실무에 이용하기 쉽게 《대명률》을 이두로 풀이하여 만든 책이다.
- ② 《대명률직해》는 필요하면 《대명률》의 원문을 조선 사정에 맞게 풀이하였다.
- ③ 《경국대전》에는 “형률은 《대명률》을 이용한다.”는 규정을 두어 《대명률》을 중시하였다.
- ④ 《대명률》은 처벌 방식을 특별히 규정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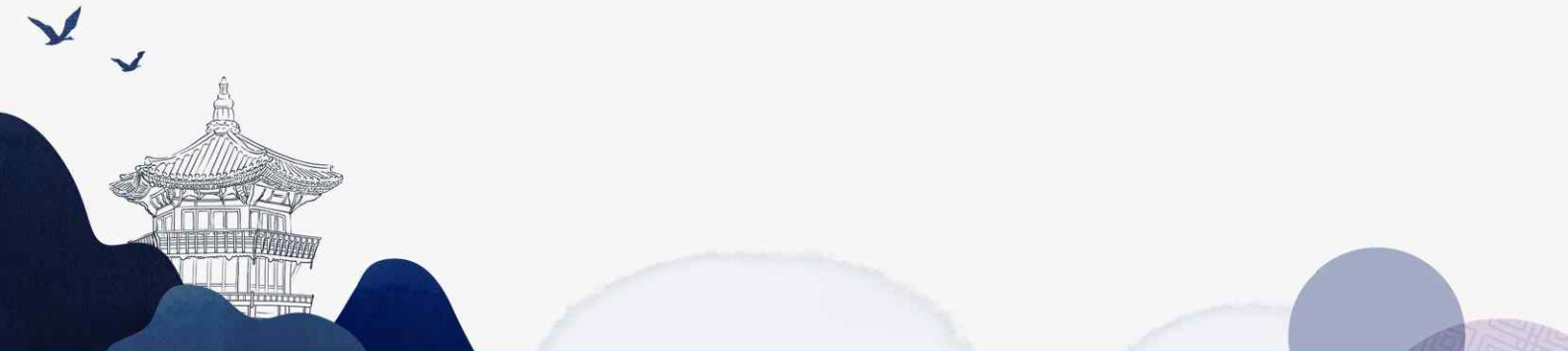
정답 ④

해설 《대명률직해》는 1395년(태조 4)에 간행되는데, 먼저 한문으로 원문을 제시하고 이어 작은 글자로 이두를 활용하여 이를 풀이했습니다. 필요하면 《대명률》의 원문을 조선 사정에 맞추어 해석했습니다. 이를테면 ‘능지처사(陵遲處死)’의 형벌을 조선에서는 거열형(車裂刑)으로 대신 시행했기 때문에, ‘능지처사(陵遲處死)’를 ‘거열처사(車裂處死)’로 풀이했습니다. 또한 《경국대전》에서는 “형률은 《대명률》을 이용한다.”고 명기, 범죄의 규정과 처벌에 《대명률》이 기준이 됨을 밝혔습니다. 《대명률》에서는 형벌을 태형부터 사형에 이르기까지 다섯 등급으로 나누었고, 또 각 형벌마다 경중에 따라 형량을 달리했습니다. 답은 ④번입니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토론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토론

-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A4 한 장 정도로 작성하면 됩니다.
- 다른 수강생이 남긴 의견에 자신의 의견을 답변으로 남겨도 토론 점수가 인정 됩니다.

주제

조선의 국가권력은 《경민편》을 16세기 초부터 19세기 말까지 다양한 형태로 간행하며 활용했습니다. 권력이 이와 같이 《경민편》을 지속적으로 주목한 것은 이 책이 가진 효용성이 적지 않다고 평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경민편》을 교육 받은 지방민들도 이 책을 통해 많은 변화를 겪었을 수 있었습니다. 《경민편》의 간행과 보급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변화를 지방민의 측면에서 예상하고 정리해 봅시다. (60분)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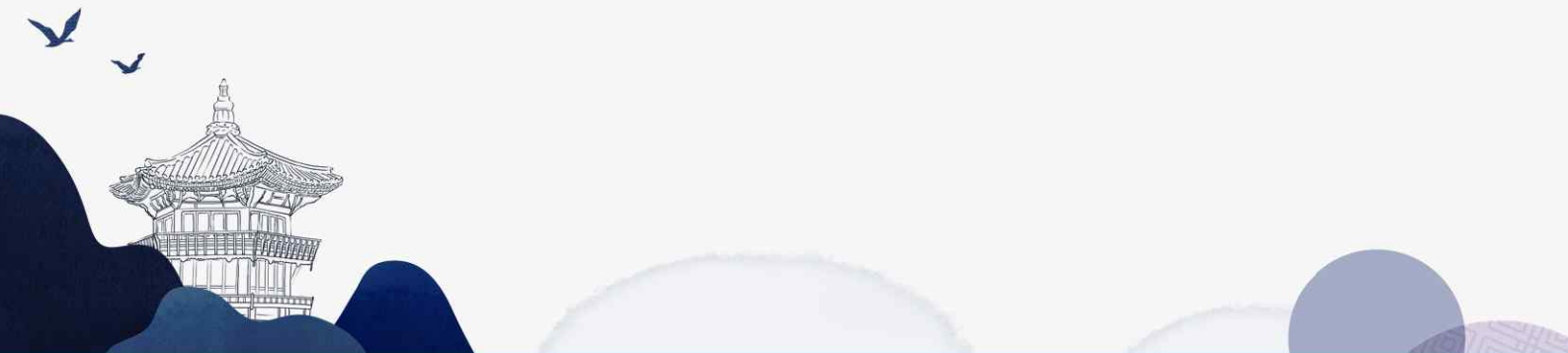
《경민편》에서 다루는 내용은 그다지 복잡하지 않지만 지방민들이 일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덕 가치와 형벌 규정을 풍부하게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을 익히게 되면 지방민들은 이 책을 통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유교 지식과 이념, 국가의 엄격한 법률을 간단하게나마 익힐 수 있었습니다.

유교(儒敎) 입국(立國)을 표방했던 조선의 국가 권력은 조선의 전 구성원들이 유교적 지식을 갖추고 유교의 세례를 받아 변화하게 되면 이상적인 정치가 가능하다고 믿고 유교 지식과 도덕의 보급에 많은 힘을 기울였습니다. 《경민편》의 간행과 보급 또한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이해하는 데에는 유교 경전이나 성리서(性理書)에서와 같이 높은 지식과 학력이 필요하지 않았고, 그런 점에서 지방의 일반 백성들도 어느 정도 쉽게 이 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방민들의 생각과 습속을 유교적인 방식으로 바꾸는데 《경민편》이 한 역할을 적지 않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자료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자료

도서

- 쉽게 읽는 경민편언해, 윤석민·유승섭·권면주 풀이, 박이정출판사, 2006

17세기 중엽 이후원 간본에 실려 있는 '언해'를 현대어로 번역하고 주를 달아 설명, 오늘날의 독자들이 경민편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경민편, 교화와 형벌의 이중주로 보는 조선사회, 정호훈 저, 아카넷, 2014

《경민편》의 전 내용을 번역하고 각 장에서 거론하는 교화의 논리와 처벌 규정을 조선의 현실과 연관하여 설명한 책입니다. 본 강의에서 다룬 《경민편》의 세계를 넓혀서 이해하고자 하는 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정조의 법치, 김호, 휴머니스트, 2020(정조학 총서 4)

국왕 정조의 정치 운영을 조선 초기부터 진행된 법치, 형정과 관련하여 살핀 책입니다. 조선의 정치권력이 교화와 형정 두 요소를 활용하며 국가를 운영하는 모습을 이해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구서입니다.

웹사이트 자료

- KBS, 한국의 유산, 『삼강행실도』

https://www.youtube.com/watch?v=Hss8jPp97CQ&ab_channel=KBS%ED%95%9C%EA%B5%AD%EB%B0%A9%EC%86%A1